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7월 18일)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홍대선원에서 진행 중인 행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6명의 대학생들이 주지 준한 스님과 함께 본지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서보우(미국 유타대), 김아린(이화여대), 김영호(제주대), 준한 스님, 유솜이(경상대), 이승민(서울대), 신수용(성신여대).

스펙쌓기·수행 동시에…이번엔 '행턴' 뜬다

〈행자+인턴〉

홍대선원 여름 행턴프로그램 운영
행자-인턴 개념 연계 사찰 인턴쉽
서울대 등 국내외 6명 대학생 참여
SNS 리뉴얼 등 사찰 발전에 한몫
준한 스님 "新 단기출가 모델 제시"
행턴들 "따듯한 공동체 생활 만족"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MZ세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서울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 이하 홍대선원)이 진행하고 있는 '행턴'이 새로운 단기출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오롯이 수행과 습의에 집중된 기존의 단기출가가 아닌 사찰 운영과 불사 기획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사찰공동체 안에서 수행과 신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홍대선원은 올해 5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주현우, 이하 대불련)와 MOU를 체결하고 'JustBe 인턴십 行턴(행자+인턴, 이하 행턴)'을 기획·시행 중에 있다.

행턴은 한국불교계 최초의 '대학생 사찰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출가했지만 아직 계를 받지 않은 행자(行者)와 정규직 채용 전 실습 과정을 밟는 인턴(intern)의 합성어다. 현재 행턴에는 △서울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경상대 △제주대 △미국 유타대 등 국내외 다양한 대학에서 모인 6명의 대학생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13개국에서 온 스님과 스태프·외국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여러 불교 신행 프로그램 기획과 사찰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단기출가 모델을 제시하고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송산하 홍대선원 스태프와 함께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스님은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으니, 이들에게 불교 수행과 실무 경험을 제공해 성장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며 "청년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내면의 힘과 지혜를 계속 발견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8월 12일 찾은 홍대선원 공양간 '비빔라운지'에서는 주간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스님, 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맡아 진행 해보면 어떨까요?" "함께 진행하는 게 더 나아보입니다." 행턴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스님과 스태프들은 이를 경청하며 그들을 이끌었다.

행턴들은 △프로그램 기획 보조(유솜이) △시설관리 보조 및 옥상정원 작물 관리(김영호·이승민) △미디어·홍보(서보우·신수용) △선원 청소·세부 디자인 작업(김아린) 등 각자 전공과 적성에 맞는 업무를 분배받았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만큼 열정도 자연히 고양됐다. 행턴들은 8월 21~23일 낙산사에서 열리는 '낙산사&저스트비 영어 서핑 템플스테이' 기획에 참여해 '힙(Hip)'한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는 홍대선원 인스타그램 리뉴얼을 위한 기획에도 참여하며 도량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무만 하는 건 아니다. 홍대선원의 모토가 '수행 놀이터'인 만큼, 평소 하고 싶었던 수행과 신행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다. 행턴들은 홍대선원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스스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한 불교 수행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그 중 매주 한 번씩 진행되는 '수업('수'행을 '업'무처럼 하자)' 프로그램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매주 수업을 통해 불교 신행 활동과 수행 그리고 '마음 나누기' 시간을 갖는다. 2부로 구성된 수업은 1부에 참선, 독경, 108배 등 전통적인 불교 수행을 체험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수행하는 시간을 갖는다. 2부는 '마음 나누기' 명상 시간이다. 홍대선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일주일간 자신이 겪었던 일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생각, 이를 듣는 자신의 마음까지 되돌아본다. 해당 프로그램은 바쁜 업무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자신의 '수행'을 '업무'처럼 꾸준히 정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홍대선원 행턴들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다. 행턴은 "따뜻한 공동체 생활"이라고 밝힌 서보우(22, 미국 유타대, 영화영상학과) 행턴은 "다양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좋았다"며 "사찰 불교 청년회처럼 큰 조직도 좋지만, 행턴처럼 가족 같은 도반·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면 이만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추천했다.

3면에 계속

현대불교신문·로터스월드 미얀마 정수시설 1호 완공

간월암 사부대중 정성 모아
파욱 명상센터에 설치 완료
마을주민 등 1300여 명 혜택



파욱센터에 건립된 정수 시설 1호기.

각종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선물하기 위한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의 제1호 정수시설이 완공됐다.

로터스월드와 현대불교신문의 제1호 정수시설이 7월 31일 미얀마 레구 타운십 지역에 위치한 파욱 명상센터(Pa-Auk Meditation Center)에 지어졌다. 정수시설은 서산 간월암 사부대중의 정성으로 마련됐다.

이번 정수시설 준공으로 명상센터에서 생활하는 출가 수행자(116명)와 재가 수행자(103명), 봉사자 등 301명은 물론 주변 마을주민 1000여 명까지 언제든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정수시설은 다기능필터와 RO필터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우물 관정에서 취수한 물을 정화하는 데 탁월하다. 특히 5시간에 물탱크 1000L를 채울 수 있던 기존 정수시설과 달리 한 단계 발전된 기능으로, 2시간이면 물탱크 1000L를 채울 수 있다. 정수시설 설치 전후 수질검사에서 음용수 적합 판정을 받았다.

간월암 주지 정경 스님은 "경내 앞마당에 설치된 '세계일화' 모금함에 모인 불자들의 정성을 뜻깊은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며 "물은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미얀마 국민이 안전한 식수환경으로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문의 : 02-725-4277
후원 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현대불교신문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공모

다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창간 30주년을 맞아 재도약하는
현대불교신문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 경영자를 모십니다.

- 공모 직위 : 사장
- 임　　기 : 3년
- 자격 요건
  -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 불교언론사로서 정론직필하며, 세상과 소통 공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자
  - 국제 감각과 뉴미디어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서명 날인)
  - 자기소개서 1부 (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4매 내외)
  - 경영계획서 1부 (후보자 본인의 의사를 기초로 작성해야 함, A4용지 6매 내외)
  - 이력서에 기재한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제출 기간 등
  - 제출 기간 : 8월 21일(수)부터 9월 4일(수)까지
  - 제출 방법 및 제출처 :
    – 등기우편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길 23-26 현대불교 부산지사)
    – 이메일 (wiseway3@hanmail.net)
  - * 응모 접수는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면접 심사 (필요 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 기　　타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모는 본인 이외에 추천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사(02-2004-8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제53차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및 역사문화관 개관식

귀의삼보하옵고,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전국 각 처에서 여여히 정진하고 계실 동문스님들을 운문의 도량으로 초대합니다. 총동문회와 역사문화관 개관식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역사문화관 개관식 : 불기 2568(2024)년 9월 25일(음력 8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개관식 장소 : 운문사 역사문화관 정문앞 뜰
승가대학 총동문회 : 불기 2568년 9월 25일(음력 8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운문사 선열당
문　의 : 054)372-8800(운문사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석우 합장



“공익 규제 사찰림, 국가법령 개정으로 해소”

전재경 위원, 사찰림 세미나서
합리성 결여 사찰림 규제 재고
사찰림 총괄처에 임업 허가 등
“입법당국, 가치 재판단 필요”
사찰림 활용 · 홍보 방안 제시도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사찰림 관리와 보전을 위한 세미나’가 8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사유림임에도 공익용 산지로 구분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사찰림에 대한 국가 법령 개정안이 제시됐다.

전재경 조계종 환경위원(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은 8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사회부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찰림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사찰림 관련 국가 법령의 정비안을 제안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사찰림은 사찰 일원에 속한 산림으로 ‘사유지’에 해당되지만 현행법령에 의해 ‘공익용 산지’로 구분된다. 공익용 산지는 국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산지로 사찰은 사찰림 소유자임에도 활용할 수 없다. 이것은 타 사유림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전 위원의 주장이다.

실제 사찰은 건물의 수리나 난방을 위해 자연공원에 속한 사찰림의 나무를 베고자 할 경우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나무를 베는 임업 수행을 위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계획서를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함(산림자원법 제13조제3항)에도 사찰에 산림기술자(임업인)가 전무해 어려운 실정이다. 사찰이 사찰림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사유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익용 토지 규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전 위원은 사찰림에 대한 법제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 위원은 △사찰림의 ‘공익용 산지’ 삭제, ‘준보전 산지’ 이관(산지관리법) △사찰림 총괄처(종단 본부 혹은 인가·위임을 받은 사찰)의 임업인 포함(임업시행령) △산촌진흥계획에 사찰림 포함(임업진흥법) △자연공원 관리 주체에 사찰 포함(자연공원법) △신탁을 통한 사찰 산림경영 지원(산림자원법) △벌기령 연장(탄소흡수원법) 등의 정비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전 위원은 “사찰림의 권익 보호가 어려운 현행법을 정비한다면, 국가와 사찰이 산림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사찰림의 관리와 보전을 위한 방안을 알아보는 발표들이 이어졌다.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前 조계종 환경위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찰림 관리 방안’을 통해 사찰림의 이용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사찰림 관리 조건을 설명했다.

윤 교수는 “탄소중립 기여를 위해 현재 대부분 침엽수림인 사찰림을 탄소 저장력이 뛰어난 활엽수림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생태다양성을 해치지 않는 임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찰림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산림관리자를 선발해 사회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옥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Korea 대표는 ‘지속가능한 숲의 생태계서비스 인증 사례’를 통해 사찰림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고양시킬 방안을 설명했다.

권성옥 대표는 “보존 가치와 생태다양성을 인정받은 FSC 인증 산림은 기업에게 임산물을 판매해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은 FSC 인증 원재료를 사용해 친환경기업 홍보가 가능하다”면서 “국내 사찰림 역시 FSC 인증을 받으면 생태다양성을 보존하는 수준에서 임산물을 생산, 판매해 지속가능한 사찰림 보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선 인사말에서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사찰림은 국토 환경과 문화유산의 보고로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라며 “사찰림의 보존과 활용방안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불교계의 대응력을 높이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8월 28일 오후 5시까지 의견 수렴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조계종이 종헌 개정을 위한 ‘총무원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계종 기획실은 8월 9일 입법예고를 공지하고 “교육과 전법,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통합 종무행정 실현, 미래 사회 대비 전법 포교 강화 등을 위해 개장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법 포교 및 교육 현안에 대한 단일 의사 결정체계 구축 △종단 행정 부서 및 총무원장 권한대행 순위를 종무행정부, 기획재정부, 포교부, 교육복지부, 사찰지원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순으로 정함 △종단 전법 포교시스템 재구축 및 강화 △스님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일원화 △교구행정 연계 및 사찰 지원 기능 강화 등이다.

의견은 서면과 이메일(kimyuna83@wehago.com), 팩스(02-733-8285)로 8월 28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임은호기자

상진 스님 “이승만기념관 건립 자체 철회”

태고종 8월 14일 입장문…“국민화합 저해 행위” 비판

이승만기념재단이 추진 중인 이승만기념관 건립이 송현광장이 아닌 국립중앙박물관 옆 용산공원으로 결정난 것에 대해 태고종이 반발하고 나섰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8월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승만기념관 건립 자체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진 스님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종교편향뿐만 아니라 3.15 부정선거에 따른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깨뜨린 장본인으로서 국민들과 4.19의거에 의해 물러난 인물”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국민과 종교 화합의 정신을 깨뜨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키워나가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종교편향 정책과 부정선거 등을 저질러 하야한다는 것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화합을 해치는 일”이라며 “이승만기념관은 절대로 건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천명했다. 신중일 기자

군위 인각사, 일연 스님 열반 735주기 다례재

8월 11일, 진우 스님 등 동참해
“일연 스님 가르침 계승” 염원



일연 스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다례재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해 500여 명이 동참했다.

군위 인각사(주지 호암 스님)가 8월 11일 경내 국사전에서 ‘보각국사 일연선사 열반 735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가 봉행된 군위 인각사는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하며 머물다가 1289년 세수 84세로 입적한 곳이다. 일연 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한국 역사와 문화유산 보존 및 불교 전통 계승을 위해 마련된 이날 다례재에는 500여 명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다례재는 다도 시연, 육법공양, 명종,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헌화, 일연 스님 행장소개, 봉행사, 청법가, 입정, 법어, 추모곡,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에서 보조국사 일연 스님의 깨달음과 ‘삼국유사’에 담긴 가르침을 설명했다. 이어 “일연 스님의 깊은 가르침은 2022년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돼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면서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동심협력(同心協力)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인각사 주지 호암 스님은 봉행사에서 “다례재를 통해 보각국사 일연 스님을 향한 사부대중의 지극한 존경의 마음 전달되기를 기원한다”며 “우리에게는 민족의 훌륭한 전통문화 유산을 체험하고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인각사는 이날 다례재에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으며 선화여고에 장학금 2500만원을 전달하며 인재불사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일연 스님은 1284~1289년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다. 1289년 세수 84세로 입적한 후, 나라에서 보각국존(普覺國尊)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임은호 기자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불신임’ 내홍

교구종회 8월 9일 불신임 가결
방장 예경실 “불법 행위” 비판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방장스님 불신임’ 건으로 내홍에 휩싸였다.

해인사는 8월 9일 경내 보경당에서 교구종회를 열고 방장 원각 스님 불신임안을 가결 처리했다. 교구종회는 불신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으나 임회 개최 요구를 두 차례 거부한 점, 승풍실추 등의 의혹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인총림 방장 예경실은 8월 12일 입장문을 내고 “교구종회는 총림 방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사 주지가 몇십명의 말사주지들을 모아놓고 불법적인 처리를 했다”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의도적인 정치행위일 뿐, 종헌종법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해인사 국장단이 나섰다. 이들은 8월 13일 ‘해인총림 방장실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하고 “교구종회법 제18조2항에 의거 합법적으로 개최됐다”면서 “방장스님은 언론에 자신의 비위와 불법사항을 감추고 호도하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해 해인사 국장단과 주지스님을 불법 폐악집단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에서 서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인사 방장 불신임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내 맞춤형 명상법, ‘국제명상엑스포’서 찾으세요”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개최
9월 24일, 본관 중강당서 개막식
명상 콘퍼런스 · 체험부스 등 ‘다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맞춤 명상법을 교육받고, 체험해볼 수 있는 국제명상엑스포가 대중을 찾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가 주최하는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9월 24~26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4 명상, 나와의 만남’을 주제로 한 이번 명상엑스포는 세계적인 명상 콘텐츠 개발·확산을 통해 전 세계인의 치유와 화합을 이끄는 소통의 장이 될 예정이다.

명상엑스포는 9월 24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시작을 알린다. 명상엑스포 개막을 선포하며, 명상엑스포의 의의를 공유한다. 온라인 실시간 라이브로도 참여할 수 있다. 개막식에서는 국악인 박애리와 팝핀현준이 미디어아트 공연을 펼친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명상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상 현황과 특징, 역할을 논의하는 ‘명상 콘퍼런스’가 열린다. 콘퍼런스에는 총 11명(해외 5명, 국내 6명)의 세계적인 명상 분야 지도자들이 참여해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콘퍼런스는 1일차 ‘명상과 지혜’, 2일차 ‘명상과 평온’을 주제로 9월 25일까지 이어진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의 보편성과 특수성’ 기조강연을 비롯해 티벳 족니 린포체의 ‘건정한 미세신을 통한 본질적인 사랑 및 지혜와 재연결하기’, 청전 스님의 ‘내면의 고요함 탐구-자기 발견의 길’ 등의 발제가 준비돼 있다.

행사 기간에는 나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아보고, 세계 각국 명상을 경험해볼 다양한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명상 체험부스’ ‘세계 명상 체험부스’ ‘좌선실 명상 체험’이 바로 그것이다. 명상 체험부스와 세계 명상 체험부스는 동국대 대운동장에 마련된다. 명상 체험부스는 ‘내 몸 알아차림, 바른자세 명상’ ‘고요힐링 명상’ 등 19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세계 명상 체험부스는 인도, 튀르키예, 미국, 일본, 티베트, 한국 등 7가지 국가 명상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좌선실 명상 체험에서는 동국대가 자체 기획한 명상 프로그램을 12차례 교육한다.

명상엑스포의 대미는 9월 26일 오후 3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열리는 ‘선명상 콘서트’가 장식한다. 국악, 클래식, 시 낭송, 합창단 등 다양한 공연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의 시간이 될 예정이다.

엑스포 기간 전후로 산업, 교육, 체험 등 영역에서 명상의 모든 것을 총망라한 연계 프로그램도 주목된다.

산업영역에서는 ‘명상심리상담 챗봇’ 개발이 진행 중이다. AI명상지도자 로봇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로, 명상 문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목표로 한다. 9월 중 문서 형태의 챗봇은 서울국제명상엑스포 홈페이지(https://mind.dongguk.edu/)에 발표될 예정이며, 음성 챗봇, 애니메이션 개발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발전해나갈 방침이다.

K-명상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활발하다. ‘K-불교명상 프로그램 개발’에서는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K-청소년 명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 가능한 양질의 명상 콘텐츠를 개발해 무상 배포한다. 현재 40개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된 상태이며, 동국대 부속 산하 학교 및 전국 초·중·고등학교 90여 곳에 배포할 계획이다. 복지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명상 지도자가 개인별 명상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행복배달 명상’도 있다. 명상지도자 9인이 섭외돼 있고, 현재 15개 기관 대상 82회 출강 운영이 확정됐다.

10월 13일까지 동국대 혜화관 선명상센터, 좌선실, 온라인(ZOOM)에서는 7가지 ‘선명상센터 응용 명상 체험’이 대중을 기다린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받고 있다.

또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동국대 대각전에서는 ‘선지식·지성인과의 만남’ 초청 강연이 마련됐다.

8월 12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명상엑스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우수한 연구시설과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동국대의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인만큼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조계종 종책사업인 선명상 대중화와 그 궤를 같이하며, 다양한 명상 콘텐츠를 개발해 필요한 곳에 힐링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사노위,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 49재

8월 11일, 극락왕생 발원 · 진상규명 촉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8월 11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 현장에서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재를 봉행했다.〈사진〉 이 자리에는 사노위 부위원장 시경 스님과 도승 스님, 한수 스님, 덕인 스님, 동신 스님을 비롯해 오현근·이준범·유금신 사노위 재가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49재에서는 화재에 희생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화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노위 부위원장 시경 스님은 “이번 49재는 아리셀 화재참사 희생자들의 영혼이 이승에서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며 올리는 기도”라며 “종교의 유무를 떠나 희생자들이 고통 없는 세상, 산재 없는 세상에 태어나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가령 기자

미래 불교 주인공들 춤·노래가 무더위 이겼다

JH콰이어 · 상월비보이 8월 14일
창단콘서트 ‘천년을 세우다’ 개최
“문화포교로 전법 사명 실천하길”

한국불교 미래를 이끌 어린이·청년 불자들이 한여름 무더위도 날릴 청량한 무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다.

불자 어린이들로 구성된 소년소녀합창단 ‘JH콰이어’와 스포츠포교 선두주자 ‘상월비보이’가 8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단콘서트 ‘천년을 세우다’를 개최하고 전법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창단콘서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어린이·청년불자 300여 명이 참석해 JH콰이어·상월비보이 창단을 축하했다.

JH콰이어·상월비보이 총재를 맡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탈종교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불교도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우리 불교, 우리 종단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우리 민족정신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젊은 불교를 이끌어야 한다”며 “JH콰이어·상월비보이 창단을 계기로 핫한 불교, 재미있는 불교, 호감 가는 불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 미래 천년을 이끌 주인공은 바로 청년들과 아이들이다. 노래와 춤으로 하화중생의 전법 사명을 실천하는 문화포교의 표상으로,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해 연화장 세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JH콰이어 · 상월비보이가 창단식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전법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날 진우 스님은 JH콰이어 한경아 단장과 황상미 지휘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JH콰이어·상월비보이 상임법사를 맡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도 상월비보이 박우송 단장, 박주승 부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상월비보이 발전기금 1000만원을 후원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창단콘서트에서는 JH콰이어가 노래 ‘피카소의 꿈’과 춤 ‘BTS 메들리’를 선보였다. 어린이 불자들의 힘찬 노래와 율동에 관객들의 박수와 호응이 쏟아졌다. 수원소년소녀합창단과 합동 공연 ‘I Believe’도 톡톡 튀는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관객들의 흥을 돋웠다. 상월비보이는 수준 높은 무대로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현란한 비트박스 공연과 화려한 비보잉 퍼포먼스는 보는 재미를 안겼다.

콘서트의 마지막 무대는 JH콰이어와 상월비보이의 ‘아제아제’가 장식했다. 관객들은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를 함께 노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다.

김내영 기자

1면에 이어

이승민(25, 서울대, 조경학과) 행턴은 “이번 행턴 생활을 통해 진정한 불자로 거듭난 듯하다”며 “원래 수행을 혼자 해왔는데, 인턴 업무를 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소속된 게 좋았다. 후에도 이를 직업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불교 동아리 회장을 3년간 역임한 김아린(26, 이화여대, 시각디자인·미술사학) 행턴 역시 ‘나’를 되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건강히 돌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 행턴은 “학교 생활중 심장 두근거림이 많았는데 행턴 생활 동안 수행하면서 모두 사라졌다”며 “티텐딩(차담)을 하면서 나를 많이 되돌아봤다. 지금까지 분별과 주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드디어 ‘아집(我執)’을 내려놓게 됐다”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행턴 경험은 불자가 아닌 학생에게도 특별했다. 신수용(23,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행턴은 이번 활동을 통해 불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기존의 불교는 굉장히 규율이 강한 종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찰에서 직접 생활해 보니, 훨씬 유연한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홍대선원은 향후 행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준한 스님은 “8월 20일에 마무리 되는 1기 행턴들이 서로 도반과 스승이 될 수 있게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인연이 더 깊어지면 미래에 홍대선원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재 기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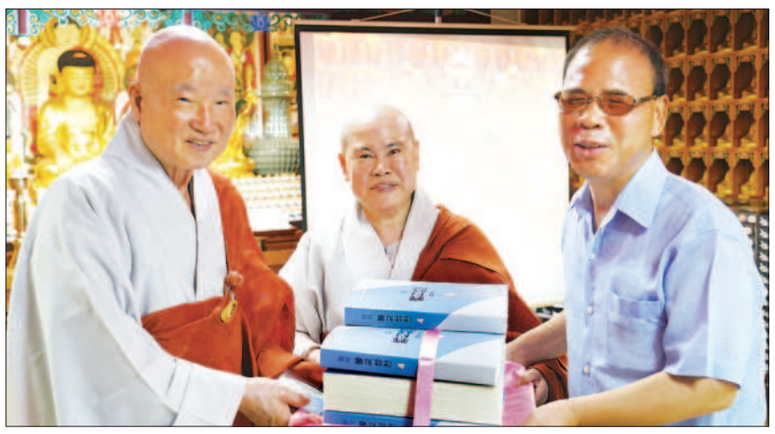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에 불교 전해요”

8월 11일, 광림사 연화원 법당서
점자 불교성전·음성녹음CD 전달
“불교 역사적 큰 족적이자 공덕”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법산 스님과 해성 스님이 강태봉 시각장애인불자회장에게 ‘점자 불교성전 제4권’을 전달했다.

장애로 인해 신행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불자를 위한 〈종단본 불교성전〉의 점자책 〈점자 불교성전 제4권〉이 발간돼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 스님)은 8월 11일 서울 광림사 법당에서 8월 법회와 함께 점자 불교경전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광림사 주지 해성 스님과 사부대중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법산 스님과 해성 스님은 강태봉 시각장애인불자회장에게 〈점자 불교성전 4권〉과 경전 내용이 담긴 음성녹음CD를 건네며 신행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발원했다.

강 회장은 “〈점자 불교성전〉은 시각장애인 불자·비불자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귀중한 책”이라며 “불교교리가 가득 담긴 불교성전을 점자책으로 만들기 위해 후원하고 노력해주신 법산 스님, 해성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감사를 전했다.

전달식에 앞선 법회에서 법산 스님은 “지금 4번째로 발간되는 〈점자 불교경전〉은 역사적, 역경(譯經)적으로 큰 의미를 가졌다”며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불교성전〉을 읽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공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조계종단 차원에서 장애불자들의 신행 활동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점자 불교성전 제4권〉 발행 소감을 묻자 해성 스님은 “점자를 배우며 시각장애인들의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깨달았다. 이들에게 보고 느끼는 감사를 전하고 싶어 〈점자 불교성전〉 간행에 몰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불교성전과 불교계 베스트셀러를 점자화하고 음성 녹음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시각장애인 불자 조주영(40) 씨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사찰에 왕래하기 어려웠는데 연화원 광림사에서 점자 경전을 읽는 등 마음 편한 신행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법산 스님과 해성 스님의 원력으로 점자 불교성전, 불교서적을 읽을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연화원 광림사는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불교교리집, 법화경 등 60여 종류의 불교성전 및 불교서적과 오디오북을 제작해 보급한 바 있다. 또한 전국 시각장애인 복지관 및 맹인학교에 점자 불교성전을 보급해 시각장애인 중 비불자도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귀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불교국가 유학생들 템플스테이로 몸·마음 ‘리플레시’

국제포교사회, 8월 10~11일
국제선센터서 한국불교 소개
사찰 안내 · 요가&명상 등 경험

경쟁과 스트레스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하는 청년 세대 사이에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업에 지친 불교국가 출신 유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국제포교사회(회장 정혜 스님)는 8월 10~11일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불자 유학생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불교’라는 공통 종교를 가진 불교국가 유학생들에게 한국불교를 소개하고,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템플스테이에는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출신 유학생과 국제포교사 등 15명이 참여했다.

템플스테이 복장으로 갈아입은 참가자들의 첫 일정은 오리엔테이션과 사찰예절 교육이다. 국제선센터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진과 스님의 지도로 합장과 공양, 절하는 방법 등 사찰 내 올바른 행동과 예절을 배웠다.

2층 대적광전으로 자리를 옮긴 후 참배와 사찰 안내가 이어졌다. 불단에 모셔진 비로자나부처님, 노사나부처님, 석가모니부처님의 특징을 알아보고, 부처님 일대기를 그린 그림을 관람하며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했다.



스리랑카 출신 하루니(P.W.Hiruni, 32, 서울대) 씨는 “지난해 국제포교사회가 진행한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던 친구가 적극 추천해 참가하게 됐다”며 “불자로서 스리랑카불교와 한국불교의 차이점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유학생 시나(Heav Sina, 37, 중앙대) 씨도 “같은 불교국가지만 절하는 방법 등 신행 활동은 나라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템플스테이는 한국불교 전통과 문화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후 3시가 되자 정신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요가&명상’이 시작됐다.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향상하는데 탁월하다. 참가자들은 법사 진각 스님을 따라 스트레칭을 하며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몸의 균형을 회복했다.

전상숙 국제포교사회 다문화부장은 “국제포교사회는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고 있다”며 “경험 많고 다양한 직업군을 갖춘 국제포교사들과 유학생들 간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유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남북 평화·화합 이뤄지는 광복절 되길”

민추본, 8월 14일 발표문
남북 적대, 남북불교 교류 저해
“80주년 광복절, 부처님 앞에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가 광복 79주년을 앞두고 남북 평화와 화합을 되새기는 발표문을 공개했다.

민추본은 8월 14일 ‘광복 79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며…’ 제하의 발표문을 내고 위태로운 남북 관계에 대한 안타까움과 남북 평화의 서원을 전했다.

민추본은 “남북의 불교도는 매년 8·15 광복절에 동시법회를 개최, 공동발원문을 채택해왔으나 남북관계 갈등 장기화로 인해 앞으로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며 “남북 동시법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넘어, 다시 한번 남북 평화와 화합을 발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발원문을 발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한 직후 남북이 분단되는 고통을 겪었다”며 “해방의 기쁨도 함께 누리지 못하고 분단된 채 79년의 시간이 지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한 민추본은 통일부가 8월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7월 말 압록강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라고 강조한 민추본은 남북정부에게 “북한 정부는 남한 정부 제안에 긍적적으로 호응해주길 바라며, 남한 정부 역시 남북교류협력에서 민간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고 민간 활동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민추본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내년 8·15 광복절에는 남북의 불교도가 평화와 간절한 서원을 담아 거룩하신 부처님 앞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김가령 기자

영국에 알린 건강한 여름 사찰음식의 맛

문화사업단 · 주영한국문화원
8월 13~14, 르 꼬르동 블루 런던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문화사업단)과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 문화원)은 8월 13~14일 영국 현지 유명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 런던에서 한국 여름 사찰음식 강의를 펼쳤다.

13일에는 르 꼬르동 블루 런던의 채식 조리 전문 과정 재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조청, 상추비빔밥, 생콩가루 된장국, 가지찜이 시연됐다. 학생들은 법송 스님의 시연을 보고 레시피를 작성하며 사찰음식에 큰 관심을 보였다.

14일에는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강이 열렸다. 일반인 대상 강의는 일찍 참가 신청이 마감돼, 르 꼬르동 블루 런던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특강이 송출됐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더운 여름날 영국 시민들과 사찰음식으로 삶의 평온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비구니 군승, 최초로 소령 진급

성무호국사 자원 스님 · 호국홍익사 관묵 스님

비구니 군승 중 2명이 최초로 소령에 진급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8월 9일 군승 소령 진급자 3명 가운데 2명이 비구니 군승이라고 발표했다. 비구니 군승이 소령에 진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원 스님


관묵 스님

자원 스님(군종사관 39기)은 봉선사에서 출가했다. 2017년 7월 1일 중위로 임관, 2018년 12월에 대위로 진급했다. △공군 제3훈련비행단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복무했으며 현재는 공군사관학교에서 부임 중이다.

해인사에서 출가한 관묵 스님(군종사관 43기)은 2021년 7월 1일 대위로 임관했다.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와 제8전투비행단을 거쳐 현재 제3미사일방어여단 호국홍익사에 복무 중이다.

김민재 기자


폴 카가메 대통령


김훈 교수


김혜심 교무


김용택 시인


안선재 수사

제28회 만해평화대상에 폴 카가메 대통령

실천대상에 김훈 · 김혜심
문예대상 김용택 · 안선재
8월 12일 시상식 개최해

2024년 만해평화대상에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수상했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최응렬·동국대 교무부총장)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열린 ‘제18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평화대상 수상자인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은 ‘인류 최악의 대량학살’로 불린 1994년 제노사이드의 나라 르완다를 응징과 보복 대신에 용서와 화해의 리더십으로 이끌어온 정치 지도자다. 르완다는 부단한 노력 끝에 대학살 이후 30년간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 중 모범적으로 경제성장까지 이뤄 ‘아프리카 발전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가 됐다. 대학살 이후 이를 빠르게 진압한 그는 국가 통합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끌어냈으며, 2010·2017년 대선에서도 압승하며 지금까지 집권 중이다.

실천대상 수상자인 김훈 인제대 일산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대학병원 응급실 당직을 밤낮으로 돌면서, 개도국에 날아가 ‘K 필수 의료’ 노하우를 전하는 일을 17년째 병행하며 국내외 필수 의료 발전에 헌신하는 인물이다.

실천대상 공동 수상자인 원불교 김혜심 교무는 1995년 아프리카 선발대로 남아공을 찾았다가 현지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목격하고 교육과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현재도 인터넷 무료 전화로 아프리카 현지의 후배 교무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어려운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

문예대상 수상자인 김용택 시인은 한국 서정시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절제된 언어로 다정하게 어루만진 지 42년째, 어느 한 쪽에 얽매이지 않는 깨끗한 시로 독자에게 감동을 줬다.

또 다른 문예대상 수상자인 안선재 수사(본명 앤서니 그레이엄 티그)는 테제공동체 소속 수도자이면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를 지낸 영문학자로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해 세계에 알리는 데 일생을 바쳐온 선구자다.

한편,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실천대상, 문예대상 등 총 3개 분야에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는 상이다. 신중일 기자

교불련, 대학마다 교수불자회 창립 나선다

8월 9일~11일 강원도 만해마을서
전법위원회 · 캠퍼스 전법단 출범
대학생 전법 교재 보급 계획도



대학생 전법의 교두보가 될 교수불자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대전대 교수, 이하 교불련) 회장단이 8월 9~11일 2박 3일간 강원도 인제 만해마을에서 캠퍼스 전법을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캠퍼스 전법단 조직 모형 및 활동 전략 모색’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교불련은 대학생 전법을 강화하고자 새 학기에 각 대학 캠퍼스 안에 ‘캠퍼스 전법위원회’를 설치하고 권역별 지부마다 캠퍼스 전법단을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권역별 전법단과 주요 사찰 전법 조직과의 연계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종단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법에 적합한 전법 교재 선정도 시급하다고 판단, 내부 검토와 의견을 모아 교재 확정 후 보급에도 나설 예정이다.

대학생 전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마다 교수불자회를 창립·활성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교수 불자들을 명상 교육이나 사찰 순례에 초대하는 등 인적 교류와 물적 지원을 통해 대학별 교수불자회 창립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민재 기자

제16회 나란다축제 학생위원단 발대식

8월 12일 서울 동국대 일원서
“재밌는 불교를 전하고 싶다”



올해 나란다 문화축제를 이끌 학생기획단이 꾸려졌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성월 스님, 이하 은정재단)은 8월 12일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제16회 나란다축제 학생기획위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처장, 신종은 은정재단 사무국장을 비롯한 학교별 교법사, 위원학생 38명(남 24명, 여 14명)이 함께 했다.

올해 3기를 맞는 청소년기획위원단은 나란다축제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청소년의 시선에 맞는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위원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위촉장 수여식을 통해 나란다축제 기획위원으로서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윤경·김민석 동대부여중 교법사, 김세연 동대부중 교법사, 우수형 동대부고 교법사 등이 학생들의 원활한 기획을 지도한다.

한편, 나란다축제는 8월 30일~31일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개최되며 올해는 △불교교리 경시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 △청소년 전통문화 한마당 △상월결사 순례체험 △“꿈의 지도” 진학·진로 체험 △나란다 K-댄스 경연대회 △은정전통예술 국악경연대회 △회향한마당 등이 진행된다. 김가령 기자





사찰, 청춘남녀 오작교 되다

낙산사 '나는 절로' · 조계사 '오작교 템플스테이'를 가다

조계종 복지재단 '나는 절로' 5기
역대급 경쟁률 속 낙산사서 열려
조계사에서는 '오작교 템플스테이'
MZ, 불교문화 체험하며 인연맺기

김가령 · 김민재 기자

MZ세대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나는 절로.' 모집을 거듭할수록 경쟁률이 높아져 공무원보다 '나는 절로' 참가자 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들릴 정도다. '나는 절로'를 주최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는 견우와 직녀가 다시 만나는 칠월칠석을 맞아 청춘남녀들의 '오작교(烏鵲橋)'가 됐다.

식지 않는 인기 '나는 절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이 주최한 '나는 절로' 5기는 8월 9~10일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주지 선일 스님) 경내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개최 전부터 '나는 절로' 역대 최고 경쟁률(남 70:1, 여 77:1)을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칠월칠석을 맞아 개최되는 '나는 절로'의 경쟁률이 남자 70:1, 여자 77:1이다. 럭키세븐이 가득한 이번 행사에서 많은 인연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연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인연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며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나의 모습을 유연히 바꾼다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모인 참가자들은 '견우' '직녀'라는 별명을 받았다. 칠월칠석을 맞아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서로가 서로의 견우이자 직녀가 돼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에서다.

짧은 입재식 이후 참가자들은 자기소개를 통해 나이와 직업, 참여 동기 등을 말했다. 참가자들은 하나같이 '생각하는 결이 비슷한' 인연 찾기를 원했다. 불자인 참가자 직녀 10호는 "사찰 소개팅에 참여하는 남성분이라면 내면에 대해 고민하는 불교의 추구미(追求美, 지향하는 바를 뜻하는 신조어)에 공감하는 사람일 테니 믿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레크레이션 시간은 참가자들이 서로 친해질 기회였다. '나는 절로'판 커플매칭 게임 '도반 동행' '운명 도반 찾기' '진정 도반 되기' 등을 진행하며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게임을 통해 친해진 참가자들은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손을 맞잡고 있는 등 한층 더 친밀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후에도 한복 입고 사찰탐방, 차담 시간, '베스트포토' 미션 등의 시간을 통해 견우와 직녀가 '썸'을 타며 가까워졌다.

'나는 절로, 낙산사'에서는 총 6쌍의 커플이 성사돼 '나는 절로' 역대 최고 성사율(60%)을 기록했다. 이 중 4쌍이 1차 선택인 '직녀의 선택'에서 맺어진 커플로 '나는 절로'의 1차 선택이 최종 선택까지 이어진다는 복지재단의 분석과 일치했다. 복지재단 관계자는 참가자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인연을 찾고자 하는 '진심'을 선별 기준으로 삼은 것이 높은 성사율의 이유라고도 말했다.


'나는 절로, 낙산사' 레크레이션에서 참가자들은 더욱 친밀해졌다.


'조계사 오작교 템플스테이'에서 풍선 게임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처음에 자신이 선택한 견우와 맺어진 직녀 3호는 "다양한 성격과 직업을 가진 10명과 1박 2일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열정 가득한 시간이었다"며 "단 3초면 첫인상이 결정된다는 말을 증명하듯 짧은 시간에 짝을 찾아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기획한 '나는 절로'는 7월 12일 개최된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대중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준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나는 절로' 다음 기수는 10월 전남 장성 백양사에서 진행되며, 겨울에는 '나는 절로'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모인 총동창회가 개최된다.

견우와 직녀 그리고 조계사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 담화 스님)는 '오작교 템플스테이'를 통해 청춘남녀 20명의 인연을 이었다. '오작교 템플스테이'는 8월 10~11일 조계사 경내 템플스테이관 3층 담소에서 개최됐다. 조계사는 신청자의 나이를 비롯한 종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참가자를 선별했다.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여러분들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딱 한번 오작교를 통해 만나는 칠월 칠석에 만났다"며 "사람 간의 만남을 두고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부른다. 부디 부처님의 도량 조계사에서 아름다운 인연 많이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조계사 경내 탐방을 마치고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나이, 직업, 가치관 등을 밝히는 자리에 대본을 가져오거나 태블릿으로 사진을 보여주는 등 열정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참가자 민다희 씨(30)는 "조계사에서 열어주신 좋은 기회에 참여해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싶다"며 참가 동기를 밝혔다.

본격적인 탐색 시간에 앞서 참가자들은 템플국 국장 선해 스님의 지도하에 '싱잉볼 명상' 시간을 가졌다. 스님이 연주하는 맑은 싱잉볼 소리에 참가자들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켰다.

저녁에는 각종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썸타는 레크레이션' 시간이 준비됐다. 불교레크레이션 협회 유상진 MC가 사회를 맡아 옆 사람과 손으로 'LOVE'를 만드는 러브 박수, '법우야', '사랑해'를 외치는 꽥꽥꽥 게임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졌다. 레크레이션 시간이 끝나자, 처음 만났었을 때의 어색함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조계사 '오작교 템플스테이'에서는 2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자신만의 견우, 직녀를 찾은 참가자들은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좋은 인연 만나셨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유한상 조계사 템플국 팀장은 "참가자들이 소극적일까 봐서 걱정이었는데 프로그램 마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기획자로서 뿌듯하다"며 "성과에 따라 추후 같은 종류의 템플스테이를 기획할 의향이 있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여 주 환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해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산수유환	어성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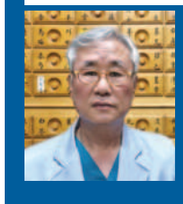
■심의번호: 제240712-중-66527호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로 힘드십니까?
계단오르기 힘드십니까? 조금만 걸어도 힘드십니까?

불편한 허리협착증, 고관절,
무릎관절에 한의약 치료를 합니다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본인의 몸상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창한의원 유 병 수 원장
• 전철1호선 제기동역 2번출구로 나오십시오.
• 1번 아치문에서 북1문 쪽으로 400미터 오십시오.
• 소창빌딩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46 (소창빌딩 2층)
소창한의원 | 02)959-9007



“한국 인쇄출판문화사, 불교가 이끌었다”

통도사, ‘인쇄출판문화사’ 주제 8월 12일 해장보각서 학술대회 한국인쇄출판. 정신문화 반영물 불교경전 보급 방편 목판인쇄술 한지, 금속주조 등 발전 뒷받침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가 8월 12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한국인쇄출판문화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학술대회에 앞서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참가 대중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한국의 인쇄출판은 우리 민족문화의 핵심이자 기반이며 불교가 없었다면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8월 12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한국인쇄출판문화사 연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가 한국인쇄출판문화사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고 불교의 역할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부길만 동원대 명예교수는 ‘한국인쇄출판문화사 연구의 성과와 의의’를 통해 “한국의 인쇄출판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구체적인 반영물이며, 동시에 우리 역사를 이끌어 온 매체”라며 “인쇄출판은 기록의 산물인바, 기록이 없는 민족은 역사적 가치를 부여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대한 기록이 풍부할 때 민족의 역사도 찬란해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쇄출판문화사 연구의 의의는 역사적 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한국의 사상사 또는 문화사 연구의 기초”라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기본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연구 의의를 전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기록물로 본 신라와 고려의 사회문화’를 발표했다. 고 교수는 “인쇄술이 생겨나기 전에는 필사가 주류를 이뤘고, 금석류나 기물류 등의 표면에 문자나 도상을 조각하고 탁인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됐다”며 “탁인 기술은 석판에 장문의 경전을 새기거나, 금판과 동판에 글자를 새기는 단계로 발전했다. 이 같은 경험이 축적돼 나무 평면에 글자의 획과 그림을 반대로 새겨 다량으로 찍어내는 목판인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라의 불교 문화 발달이 바탕이 되고 경전의 보급 및 저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으로 발달한 것이 목판인쇄술”이라고 강조했다.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는 ‘신라와 고려의 인쇄문화’를 통해 “불교가 없었다면 인쇄술은 없었을 것”이라며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술은 국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1966년 10월 13일 경주 불국사 석가탑을 수리하던 중 탑신부 사리함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이사는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가 가능했던 것은 쇠를 만드는 제금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며 주조기술의 발달이 인쇄술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발전해 5㎜ 크기의 초소형 금속활자 속에 애국가 가사 가운데 총 129자를 넣는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현대 한국의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내용”이라 말했다.

박몽구 (재)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은 ‘신라와 고려의 출판문화’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역사적인 기록에 대한 욕구가 어느 민족보다 강했으며 진리에 대한 탐구 정신이 강해 인쇄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됐다”며 “불교 중심으로 경전 발행과 해석을 위한 높은 의욕이 출판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후 문학과 인재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 스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학술대회에서 성파 대종사는 “출판 인쇄 문화는 사바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지며 그 자체만으로도 지식의 창고이다”며 “찬란한 불교의 역사는 한국의 출판인쇄문화에 영향을 주었고 전 세계 가운데 우리는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그 가치를 널리 알고 깨우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귀의·오계 수지하오니” 1300대중 불자로 거듭나다

조계종부산聯, 8월10일 수계법회 제6대 회장 목종 스님 취임식도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가 8월 10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제7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제6대 회장 취임식도 마련돼 새로운 전법의 장을 선포했다.

삼귀의계오계 수계법회는 결계의식을 시작으로 삼사 칠증사가 계단을 증명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맡았으며 갈마아사리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교수아사리는 직전 회장 원허 스님이 담당했다. 칠증사인 존증아사리는 신임회장 목종 스님, 미타선원 원장 하림 스님, 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도일 스님, 재단법인 동명불원 원장 원순 스님, 연합회 부회장 만초 스님, 지일 스님, 담화림 스님이 각각 담당했다.

수계인원은 총 1300여 명이며 조계종부산연합회 소속 사찰 신도들을 비롯해 대전과 울산, 양산 등 타 지역의 불자들이 동참해 계를 지켜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이와함께 부산공무원불자회, 부산지방경찰청 경불회 소속 불자, 범어사 관음회, 부산여성불자회, 삼보회,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등 신행단체도 참여했다. 특히 새로운 동참자로 제53사단 보병대, 해군작전사령부 군장병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전계대화상 지현 스님은 “계율을 지키고 선정 수행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이라며 “오늘 받은 계를 의지해 선정을 닦고 지혜를 증장하면 참여한 불자들의 마음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이취임식에서는 제6대 회장으로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이 취임했다.

신임회장 목종 스님은 취임사에서 “오늘 함께해주신 스님들과 우리 불자님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부족한 제가 회장 소임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족한 제가 회장직을 맡게 되어 걱정도 많이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조계종부산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조계종부산연합회는 8월 10일 ‘제7회 삼귀의계 · 오계 수계법회’와 ‘제6대 회장 목종 스님 취임법회’를 함께 봉행했다. 사진은 제6대 회장으로 취임한 목종 스님이 회기를 전달받아 흔들고 있다.

사찰, 어린이 행복 놀이터가 됐어요

부산 삼광사, 어린이여름캠프 8월 10일~11일 경내 일원서

부산 천태종 삼광사가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놀이터가 됐다.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어린이여름문화캠프’를 진행했다.

어린이여름문화캠프에는 지역 어린이 70여 명이 동참했으며 입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각 6조로 나눠 진행된 프로그램은 장기자랑을 뽐내고 즐기는 댄스, 음악 시간 등이 마련됐으며 물놀이, VR체험, 공연이벤트 등 즐거운 체험도 이어졌다.

특히 싱잉볼 명상, 발우공양, 108배, 명상 등 불교 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마음의 쉼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도 진행됐다.

회향식에서는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교무국장 덕중 스님, 일지 스님(구인사 어린이법회 법사) 등 내빈이 동참해 격려했으며 학부모 및 참여 어린이가 동참했다.



삼광사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어린이여름문화캠프’를 진행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회향 법문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바다마음 단주 명상 부스’를 마무리하며

바다마음 한마음 단주 명상, MZ 사로잡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국제불교박람회 명상부스 운영

‘물방울아 바다로 가자’ 주제로 주인공 관법+단주 만들기 명상 MZ세대 호응 높아 ‘인기 만점’

2024년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누적 관람 인원 5만 명을 돌파하며 성료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성공에 힘입어 부산에서도 열린다는 소식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바다마음 단주 명상 체험’ 부스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물방울아 바다로 가자”라는 주제로 준비된 체험 부스는 대행 선사의 관법 수행을 단주 만들기에 녹여낸 프로그램으로 고민이나 갈등으로 고통받는 나를 물방울에 비유해 참나인 한마음 바다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명상 수업을 진행하며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친근하게 마음법을 전할까 고심하던 부산지원의 혜벽 스님이 만들어 낸 프로그램이다.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박람회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이나 순서를 수정해 나가는 시간을 거쳤다. 바다와 물방울로 마음법을 표현한 그림책과 3D 영상도 제작했다. 그림책은 외국인들의 참여를 대비해 영문 번역도 함께 실었다.

바다마음 단주 명상 체험 부스의 반응은 첫날부터 뜨거웠다. 검은색이 주를 이룬 박람회장의 수많은 부스 가운데 푸른색의 모시 세 가닥을 길게 늘어뜨려 시원한 바다를 연상시킨 부스는 눈길을 끌었다. 단주에 사용된 푸른색 원석과 자개 돌고래, 은고리 등이 어우러진 단주 완성품도 예쁘다는 감탄을 자아냈다. 박람회장을 찾은 MZ세대들은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 체험 예약은 오전 중에 마감됐다. 체험하려고 했으나 마감돼 아쉬웠다는 글들이 SNS에 공유되며 마지막 날에는 10시 오픈과 동시에 예약을 위해 70~80명이 줄을 서기도 했을 정도였다. 대전에서 첫 기차를 타고 왔다는 참가자부터 김해에서 10시에 입장해 오후 5시 체험까지 7시간을 기다렸다는 체험자까지 젊은 층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체험 부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부스 앞이 사람들로 붐빌수록 모시를 드리워 분리한 체험 공간은 더욱 고요하고 프로그램 진행은 한층 더 차분하게 진행됐다. 부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어폰을 끼고 연꽃이 그려진 좌복 위에 앉은 것. 일시에 박람회장의 소란함은 사라지고 고요히 정좌한 자신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의 전 과정은 박람회장의 번다함과 소음을 차단하고 집중력과 고요함을 확보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진행됐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서 ‘바다마음 단주 명상 부스’를 운영했다. 사진은 바다마음 단주 명상을 체험하는 관람객들.

프로그램은 ‘우리 모두는 구정물, 핏물 어떠한 것이든 다 받아들이는 바다 같은 한마음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대행 선사의 법문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네 장의 그림카드를 보며 단주의 의미를 공유했다. 참가자들은 근본인 참나를 뜻하는 푸른빛 구슬 원석, 지혜로운 한 생각 내기를 뜻하는 하트 원석,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물방울 원석을 은고리와 연결해 단주를 만들며 나를 돌아보고 지혜롭게 마음 쓰는 법을 연습했다. 30여 분의 체험 시간을 마친 체험자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생각 내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걱정, 고민, 갈등의 물방울들을 고요한 근본 바다에 돌려놓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바다 마음 단주 만들기를 끝낸 뒤 적어낸 참가자들의 발원문이에는 지혜로운 한생각들이 담겨 있었다. 한 참가자는 “최근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힘들었는데 이 또한 근본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니 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시간을 주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마음속에서 걱정, 의심, 불안이 끊이지 않아 편안한 때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큰 바다에서 나온 물방울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며 “예쁜 바다마음 단주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의 근본이 바다같다는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새기겠다”고 했다.

이번 바다마음 단주 명상 부스의 뜨거운 반응은 나이, 성별, 종교를 떠나 누구에게나 쉽고 친근하게 불교를 알리는 불교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반짝 높아졌다 사라져 버리는 관심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해야 할까를 되묻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바다마음 단주 명상 부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명상존을 운영할 팀을 찾기 위해서 부산불교박람회를 돌아보던 국제회의 기획자의 눈에 띄어 10월에 부산에서 열리게 되는 비욘드 한글 & K 컬쳐 페스티벌 마스터 클래스 명상 부문 부스 운영을 제안 받았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콘텐츠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며 부스 운영에 참여해달라고 초청한 것이다. 아직 논의 단계이긴 하지만 MZ세대에 이어 오는 10월, 부산을 찾는 외국인 전문가들을 한마음의 바다로 초대하기 위한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떼는 시점이다.

천미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자연유산 '사찰경관림' 활용도 높인다

국가유산청, 사찰경관림 홍보대사 범정 스님 위촉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꽃스님'으로 유명한 범정 스님이 불교자연유산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불교자연유산 발굴을 활성화하고 국민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8월 13일 나주 불회사(주지 철인 스님)에서 최근 '꽃스님'으로 알려진 범정 스님('보살피다' 지도법사)을 불교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국가유산 중 약 60%는 불교유산이다. 그중에서도 전국 사찰에 자리한 사찰경관림은 오랜 역사를 지닌 자연 수림지로, 천연기념물과 명승지 등으로 보존되고 있는 한국의 자연유산이다.

위촉식에는 불회사 주지 철인 스님, 홍보대사 범정 스님, 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 김지호 전남도청 문화자원과장, 성기홍 불교방송 사장 직무대행, 목포대학교, 나주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경훈 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유산청은 올해 5월 출범했다. 최근 자연유산국이 새롭게 신설되어 자연유산정책부터 동식물, 명승 전통 조경, 지질유산이 각자의 독립된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며 "유구한 세월 동안 사찰과 함께한 사찰경관림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야생동물의 보금자리가 되는 기후변화의 지킴이다. 불교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 덕분에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장은 "이번 홍보대사 위촉이 불교자연유산 사찰경관림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을 다시 살리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월 13일 나주 불화사서 위촉식
숲길 명상 등 체험프로그램 계획
범정 스님 "국민 정서 함양 노력"


국가유산청은 8월 13일 나주 불회사에서 '꽃스님'으로 알려진 범정 스님을 불교자연유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철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그 심각성을 누구나 느끼고 있다. 이에 자연유산 보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불회사는 나주 외곽에 있는 작은 사찰이지만 비자나무와 동백숲, 연리지까지, 세간에 알려지면서 숲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도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앞으로 자연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국가유산청의 불교자연유산을 활용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성기홍 사장 직무대행도 축사에서 "뜻을 모아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드리며, 이 여름을 보내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행사는 그 실천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불교방송은 국가유산청과 함께 불교자연유산림 '명품 숲 30선'을 선정하는 인증작업도 계획하며 앞으로 명품 숲을 활용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부 기념식에 이어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다. 홍보대사에 위촉된 범정 스님은 "얼마 전 어른스님께서 '지금까지 사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국민의 정서적 안녕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사찰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알려야 한다'고 하셨다"며 "그런 마음으로 불교자연유산 홍보대사에 위촉된 것에 감사하다. 앞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활동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위촉식에 이어 국악 공연과 함께 참가자들은 범정 스님과 불회사 숲길을 거닐며 K-불교명상 체험, 불회사 숲길 안내 등을 진행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관단체와 함께 사찰경관림을 활용한 명상과 한국의 자연유산이 지닌 가치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해 용문사, 군장병 템플스테이 MOU

8월 8일 14해감대대와 협약식



남해 용문사가 장병들의 신심안정과 정신수양을 위한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8월 8일 경내에서 육군 39사단 14해안감시기동대대 (대대장 안세민 이하 14해감대대)와 템플스테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날 체결된 협약은 장병들의 심신안정과 정신수양을 통한 정신전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내 관광 활성화 및 상생 공동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14해감대대는 장병들에게 템플스테이 시행 배경, 방법 및 일정을 설명하고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용문사는 장병들의 템플스테이 입소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더 많은 장병에게 템플스테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용문사 주지 승원 스님은 "군장병들의 심신 건강을 위해 기꺼이 마음을 내어 주신 대대장님과 군부대 측에 감사드린다"며 "군장병들이 서로 화합하고 더욱 활기차게 군생활을 이어가는 데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태종, 재가불자 한달 수행 결제

8월 7일 구인사 광명전서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8월 7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제127회 갑진년 하안거 한 달 수도 결제식'을 봉행했다.〈사진〉

결제식은 오후 9시에 천태종 소속 전국 말사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해제식은 9월 6일 오후 9시에 봉행한다.

천태종 종정예하 도용 스님은 결제 법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청정한 것이 '일심청정'이다. 불자들은 항상 마음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며 "그러지 못하면 근심·걱정이 쌓이게 된다. 마음을 잘 닦아 무상정각을 이루는데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안거 기간 동안에는 종정 도용 스님이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광명전에서 대중설법을 진행한다.

유재상 충정지사장

"마음공부, 학교 수업도 도움되네요"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교사연수
경기 · 경남권 교사 16명 참여
마음공부하며 스스로 돌아봐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은 8월 5~7일, 8월 12일까지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직무연수-괜찮지 않아도 돼!'를 개최했다.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이 스스로 마음의 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 스님)이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직무연수-괜찮지 않아도 돼!'를 개최했다. 8월 5~7일, 8월 12일까지 총 30시간 진행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은 스스로 마음의 힘을 알고 자신을 바르게 보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연수는 경기·경남권 교사 16명이 동참했으며 강의뿐 아니라 실습과 토론 등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호응을 얻었다.

숙박형 2박 3일 동안 진행된 연수는 김민선 서종초등학교 교사의 '고정관념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과 혜서 스님, 혜환 스님의 '마음을 여는 대화' '괜찮지 않아도 돼!' '촛불명상' △한마음 출판부 혜교 스님의 '주인공으로 살아요' △최명희 경북대 강사의 '나로부터 시작하는 세상' △박옥남 경남 한마음인성교육연구회 연구원의 '마음의 원리' △차희원 통영중학교 교사의 '자유로운 나', '무지의 자각' △박훈 한마음과학원 팀장의 '아름다운 고백(Go Back)' 등의 교과목이 운영됐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의 중심에는 주인공 관법이 있다. 주인공 관법을 통해 일생생활에서 자신의 근본인 주인공을 믿고 맡겨놓고 지켜보며 실천 수행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 교과 및 학생지도, 학급운영을 포함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문제 상황을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모든 일들이 나로 인해 일어나고 있고, 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내 뜻대로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다른 참가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연수 과정에서 들었던 죽음에 대한 강의에서도 깊이 생각해보며, 지금의 삶을 점검하고, 마음을 한층 비울 수 있는 연수였다"고 답했다.

이번 연수 자리를 마련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익히 들어왔다"면서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여름, 겨울마다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에게 맞는 마음공부 프로그램 연수를 개발·보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미륭당 월탄 대종사 2주기 열반 다례재

8월 10일 청주 용화사 경내서



한국불교 정화운동을 이끌었던 미륭당 월탄 대종사의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다례가 엄수됐다.〈사진〉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 스님)는 8월 10일 경내 용화보전에서 '미륭당 월탄 대종사 2주기 열반 다례재'를 열어 스님의 발자취를 기렸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암도 대종사, 은해사 조실 법타 대종사, 법주사 설조 대종사, 법주사 주지 정덕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문도대표 성운 스님은 "법주사, 단양 대흥사, 청주 용화사에 은사스님 비를 모셨고 내년에 제막식을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 국제전법단 '선연 4기' 진행

8월 8~10일 서산 보원사서



조계종 국제전법단(단장 정범 스님, 보원사 성역화추진위원장)이 개최한 '선연4기 불교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이 8월 8~10일 서산 보원사에서 개최됐다.〈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사찰 경내 텐트에서 야영하는 '캠플(Camp+Temple)스테이'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전국의 불교종립학교(동대부여고, 동대부선화고, 광동고, 청담고 등)에서 모인 25명의 학생은 각 학교 교법사들의 지도에 따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선연4기 참여 학생은 "좋은 경험을 하고 친구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어 즐겁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광주 무등산 증심사 지역후원기금 전달

동구청에 2000만원 기부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가 어려운 지역사회 긴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후원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증심사는 8월 14일 광주 동구청(청장 임택) 구청장실에서 '무등산 증심사 지역사회 자비실천-동구민 The행복+사업비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중현 스님은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현안에 사용해 달라"고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게 공양올립니다"

마산 정법사, 승보공양법회
8월 11일 정법사 만불전서
통도사 율원스님 승보공양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백중 6재를 맞아 승보공양 및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마산 정법사는 8월 11일 경내 만불전에서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등 율원스님들에게 승보공양을 올렸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회장 박희순)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미경)에 각각 백미 1000kg을 전달했다. 이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유기견 사료지원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행사는 불공의식 후 총무 명원 스님의 사회로 주지 광우 스님의 인사말, 1부 자비나눔, 2부 승보공양 법회로 이루어졌다.


마산 정법사는 8월 11일 경내 만불전에서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 등 율원스님들에게 승보공양을 올렸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백중을 맞아 불자들이 보시한 공양미가 많아져 자비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며 "덕분에 지역의 어려운 어린이들과 긴급구호가 필요한 적십자사에 자비의 쌀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와 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유기견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기도 하고 또 불교와는 떼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자비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불자들의 동참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승보공양 법회에는 정법사 신도운영위원회(신도회장 김선정)가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을 비롯한 율원스님 16명에게 의약품 등을 공양했다. 정법사 영축다도회는 고려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구를 복원, 차공양을 올렸다.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은 "우란분절 법회를 통해 우리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승보공양과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며 "오늘 승보공양의 모습이 한국불교를 보다 청정하게 만들어, 많은 감동을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담양 보리암 불교문화유산 조명하다

보리암, 8월 13일 학술대회



담양 보리암(주지 원융 스님)은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소장 오암 스님), 담양군(군수 이병노)과 함께 8월 13일 담양문화원에서 '담양 보리암 불교문화유산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보리암은 CNN이 선정한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한 곳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국제명상센터 건립을 추진 하는 등 최근 담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통사찰이다.

보리암 주지 원융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보리암의 종합정비 계획을 구축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몽골 칼라차크라 관정 법회에 세계불자 운집

8월 9~22일, 총본산 간단사원서
자도 린뽀체 집전에 대중 수만명
세계평화 증진…개인 수행 입문
차기지도자 제쭌 담빠 후툭투 상석

박영빈 객원기자



칼라차크라 관정법회를 준비하는 자도린뽀체. 사진출처=자도 린뽀체 공식 페이스북

몽골불교의 총본산인 간단사원에서 8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세계평화를 위한 칼라차크라 관정법회가 봉행되고 있다. 티베트의 고승 자도 린뽀체가 집전하는 이 관정법회를 위해 몽골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부대중들이 운집했다. 지난 9일 '자유아시아방송'과 몽골의 현지언론들은 이 법회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칼라차크라 관정법회는 세계평화를 증진하고 수행자 개개인이 칼라차크라 수행에 입문할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하는 법회다. 이 관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법형제로서 인연을 맺게 되고 서로의 평화와 깨달음을 위한 기원을 올리기에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는 인연이 있다고 한다. 또 티베트 불교권에서는 이 법회에 참석하면 다음생에 삼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해탈할 수 있는 인연을 지을 수 있다는 속설이 있어 많은 사부대중이 운집한다. 그렇기에 티베트 불교에서도 칼라차크라 관정을 주관할 수 있는 고승은 많지 않으며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라마 역시 인도를 비롯해 영미권 국가들에서도 칼라차크라 관정법회를 개최할 때마다 최소 수 만명의 불자들이 운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몽골에서 봉행되는 칼라차크라 관정법회는 달라이라마의 개인 사찰인 남갤사원의 전 방장, 자도 린뽀체가 주관한다. 자도 린뽀체는 특히 칼라차크라 수행의 전문가로 이름 높으며 이미 2019년 몽골에서 해당 관정법회를 봉행한 바 있다.

자도 린뽀체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몽골과 칼라차크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한다. 몽골불교 최고의 스승이었던 자나바자르 스승 때부터 이미 몽골은 칼라차크라의 특별한 성지로 여겨졌고, 티베트는 물론 멀리 인도의 불자들도 칼라차크라의 가르침을 위해 몽골을 방문했다"며 이번 법회의 연기를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칼라차크라 법회에 새롭게 몽골에 등장한 불교 지도자인 10대 '제쭌 담빠 후툭투'가 법회의 상석에 앉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9세인 10대 제쭌 담빠 후툭투는 몽골불교의 차기 최고지도자가 될 환생자로, 이번 법회를 주관하는 자도 린뽀체가 그의 개인교사로 경전과 불교의례를 가르치고 있다.

법회를 개최하는 간단사원 측은 "이번 관정법회는 간단사원의 요청으로 봉행되며 의궤에 맞추어 장장 2주간 봉행된다. 관정법회 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대중들을 위하여 일반 법문도 함께 진행된다. 모든 법문과 관정은 자도 린뽀체가 주관하신다"고 밝혔다. 몽골불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던 이번 법회는 점차 참석을 희망하는 대중들이 늘어나면서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4개 국어로 동시통역이 결정됐다.

지난 9일 현지시간 오전 5시부터 시작된 법회는 16일까지는 칼라차크라 모래만달라의 조성과 일반 법문들이 진행됐으며 16일부터 22일까지 관정법회가 봉행되고 있다. 간단사원 측은 "예상보다 많은 사부대중들이 운집하면서 법회의 규모가 커지게 됐다. 참석을 원하는 이는 반드시 현장, 혹은 사전등록을 하고 출입증을 받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연걸, 두 딸과 티베트 포탈라궁 방문

티베트 불교 성지 '라싸' 순례



사진출처=이연걸SNS

한때 건강 위독설이 돌았던 중화권 액션배우 이연걸(61)이 두 딸과 함께 티베트 불교 성지를 순례 중인 모습을 공개해 화제다.

이연걸은 지난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마 전 딸들과 라싸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다"라며 딸들과 함께 한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이연걸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두 딸과 함께 라싸에 방문해 스님들과 환담을 나눴다. 라싸는 티베트 자치구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로 불교의 성지순례지 중 하나다.

특히 그들은 해발 3750m에 위치한 포탈라 궁전을 찾았다. 포탈라 궁전은 송첸캄포왕이 문성공주를 위해 7세기에 지은 건축물로, 바로 라싸의 상징이자 달라이라마가 거주했던 궁전이다. 1994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연걸의 두 딸인 제인과 자다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불교에 입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세인트헤드라인 등 외신에 따르면 이연걸은 지난해 11월 대만에서 그의 자서전 'Beyond Life and Death: Jet Li Looking for Jet Li'를 홍보하면서 "딸 자다가 7살 때부터 우울증과 싸웠다"며 "자다와 함께 3개월간 티베트 불교 공부를 했고, 이는 딸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연걸은 25년 동안 불교를 수행할 만큼 불교에 깊이 빠져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최근 전 세계 불교 사찰들을 돌면서 산에서 명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연걸의 건강한 모습에 팬들은 "건강한 모습 보게 돼 기쁘다" "환영한다. 나의 영웅"이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연걸은 지난해 11월 영화 촬영장에서 쓰러진 뒤 사망설이 제기됐다. 이연걸은 지난 2013년 갑상샘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박정현 기자

'미항' 홍콩 숨겨진 보석 '츠샨스 불교미술 박물관'

2019년 개관, 세계 명품 불교미술
"영적 발전 기회되는 전시 제공"



츠샨스 불교미술 박물관에 전시중인 6세기경의 석조 반가사유상. 사진출처=필스타 글로벌

번잡한 홍콩 시가지에 벗어난 산자락에 위치한 츠샨스(慈山寺), 최근 츠샨스에 위치한 불교미술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이 조용한 열풍을 몰고 있다. 8월 11일, 동남아 뉴스 전문 매체인 '필스타 글로벌'은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불교미술 박물관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지난 2015년 홍콩 최대자선 단체인 리카싱 재단이 츠샨스를 개원하면서, 불교미술 박물관의 계획도 같이 시작됐다. 리카싱 재단의 이사장이자 홍콩 최고의 부자로 유명한 리카싱 청쿵그룹 회장은 오랫동안 수집해온 불교미술품을 대중들이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박물관 개관을 꿈꿔왔고, 사찰의 개원과 함께 경내에 박물관 건립의 꿈을 이어나갔다.

리카싱 회장은 불교미술이 "시각적 아름다움으로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츠샨스의 관음대불 지하에 개관한 '츠샨스 불교미술 박물관'은 홍콩 최초이자 유일한 불교미술 전문 박물관이며 아시아 전역의 귀중한 불교 유물이 전시, 수장돼 있다. 박물관 개관 후 홍콩 관광청은 츠샨스와 박물관을 경제와 관광허브의 중심인 홍콩의 열광적인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방문객이 꼭 방문해야 할 도시의 '숨겨진 보석' 두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현재 전시 중인 기획전 '다채로운 도상학: 아시아 불교 미술의 희귀 컬렉션'은 중국 불교조각을 중심으로 중국의 종교적 계보와 관련된 불교미술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박물관 측은 "불교는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창시한 이래로 지배계층의 후원을 받았고, 승려들과 여행하는 상인들이 전파했다. 불교는 아시아 전역의 종교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아시아 종교문화를 풍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 독특한 특성을 지닌 불교예술을 탄생시켰다"며 "이번 전시는 이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 불교를 전파하는 중심점이 되었던 중국의 불교미술이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호법신들(천왕, 신장)', '신성함의 현현(아라한 또는 조사)', '자비와 서원(보살)', '장엄한 광명(여래)'의 4장으로 구성된 이번 기획전은 각 장마다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중국 불교미술 고유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박물관 측은 "불교미술 전문이라는 독특한 주제전시와 문화활동을 통해 우리는 불교와 문화를 엮어내고, 방문객에게 예술작품의 감상과 동시에 영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대중의 방문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부통령 후보와 달라이라마, 인연은?

월즈, 2016년 달라이라마 만난 후 "인생 바뀌었다"



사진출처=블룸버그통신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부지사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의 인연이 뒤늦게 세간의 관심을 얻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월 7일(현지시간) "월즈가 수십 년 전부터 중국과 인연을 맺어오면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도 만난 이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월즈 주지사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이후 2017년 홍콩 인권민주주의법 발의에 참여해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의 석방을 촉구했고, 중국 내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면서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꼽힌다. 그는 중국에서 돌아온 직후인 1990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에게 적절한 리더십만 있다면 그들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며 "중국인들은 친절하고, 관대하고, 유능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그가 달라이라마와 만났던 이력을 소개하며 "중국의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그는 2016년 티베트 독립운동을 하다 중국의 탄압을 받고 해외에 망명한 달라이라마와 만난 뒤 자신의 SNS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글을 올렸다.

박정현 기자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불자대중과 소통하는 수륙재 공연 선보입니다”

경제어산전승보존회 수륙재 시연회
오는 9월 8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서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 팔순기념
제자 정오 스님 등 11명 시연 설행
작법무 중심 공연 형식으로 구성돼
스님의 시연 소식에 이미 좌석 매진
동주 스님 “내년 수륙재로 회향할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8월 12일 서울 가양동 홍원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 사찰들의 불교의식을 전승하는 경제어산전승보존회가 불자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수륙재 공연을 펼친다.

경제어산전승보존회는 8월 12일 서울 가양동 홍원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제43호 보유자 동주 원명 스님의 팔순을 기념해 ‘경제어산수륙재’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시연회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의 팔순을 맞아 문현·화암·상연·정오·선각·선경·보천·지성·현준·성운·보정·하경 스님 등 제자 12명이 마련한 공연이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한국불교의례전승원장 정오 스님은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의 사리가 바로 범패다. 출가 이후 스님은 선원 정진 7년을 제외하고 56년을 오롯이 범패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셨다”면서 “후학으로서 스님의 원력이 담긴 경제어산수륙재를 대중에게 선보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어산수륙재 시연은 총 3막으로 이뤄진다. 첫 막은 부처님을 모시는 법회를 위해 신중을 모셔 도량을 결계하는 의식이 이뤄지며, 두 번째 막은 도량을 청소하며 부처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의식이 시연된다. 바라와 나비무 등 부처님을 찬탄하는 화려한 불교의 작법무가 펼쳐질 예정이다. 세 번째 막은 불보살을 모시고 법회 열어 이를 회향하는 의식이 이뤄진다. 또한 불자들은 잘 볼 수 없는 순당(巡堂) 의식도 펼쳐질 예정이다.

정오 스님은 “공연장에 와서 의식을 보면 종교의식의 정수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본래는 10일 정도, 최소 하루 정도는 설행해야 하는 의식이지만, 이를 축약해 2시간으로 구성했다. 대중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작법무 중심으로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원사 주지 성오 스님은 “공연장이 약 700석 가량 된다. 무료로 펼치는 의식 시연이나, 좌석을 채울 수 있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입소문이 벌써 퍼져 좌석이 전부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의 관심에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연은 동주 원명 스님의 소리를 공연장에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스님은 내년에 설행될 수륙재를 마지막으로 회향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동주 원명 스님은 “본래 수륙재는 공연 무대에 맞지 않다. 종교의식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부분도 있어서 공연장에서의 시연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대중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공연장에서의 시연도 필요함을 제자들이 이야기해 이번 시연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부처님오신날 이후 단오까지 수륙재를 정통으로 봉행하려 한다. 이 수륙재 설행이 마무리되면 모든 것을 회향하고 내 수행을 하려고 한다. 내년 이후에는 후학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 석탑 양식 특징 간직한 보경사 ‘오층석탑’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8월 13일 지정예고
“11세기 석탑 기법 · 양식 간직”

고려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간직한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이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8월 13일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사진〉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경내 적광전 앞에 위치한 높이 약 4.6m 규모의 석탑이다. 단층기단 위에 5층의 탑신석(塔身石, 몸돌)과 옥개석(屋蓋石, 지붕돌)으로 구성된 탑신부가 있다. 상륜부(석탑 꼭대기에 세워 놓은 장식 부분)는 노반석과 복발석으로 이뤄졌다.

오층석탑은 1023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588년 사명대사 유정이 지은 ‘내연산보경사금당탑기(內延山寶慶寺金堂塔記)’ 기록에 따르면 고려 현종 14년(1023년)에 사찰에 탑이 없어 청석(靑石)으로 5층탑을 만들어 대전 앞에 놓았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석탑의 1층 탑신석 정면에는 석탑 내부에 사리가 모셔져 있음을 의미하는 문비형(문틀이나 창틀에 끼워서 여닫게 되어 있는 문이나 창의 한 짝 모양)과 자물쇠, 문고리 조각이 선명하게 표현돼 있다. 이는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석탑과 승탑에서 시작돼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승된 사리신앙의 상징으로, 사리를 섬기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유산청은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고, 11세기 석탑의 전형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이 잘 나타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찬불창작곡 58집 발표



찬불창작곡을 보급해 온 불교문화단체 좋은벗 풍경소리(대표 이종만, 이하 풍경소리)가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 새로운 찬불창작곡을 수록한 58집 앨범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풍경소리 58집에는 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치 풍경소리와 닮은 듯한 노래 ‘소나무’(이종만 작사·작곡)가 1번 트랙으로 김정자 작사·서근영 작곡의 ‘비천’이 2번 트랙으로 담겼다. 아이들의 눈부신 목소리로 부른 ‘나무는 나무는’(전병호 작사·이종만 작곡)과 ‘부처님 감사해요’(전병호 작사·정유탁 작곡), ‘봄날씨’(덕진 스님 작사·최미선 작곡)도 수록됐다.

풍경소리의 찬불창작곡 중 가장 사랑받고 있는 ‘너와 나’(이종만 작사·작곡)를 새로이 편곡해 실었다. 신중일 기자

재미·감동 있는 불교영화 33편 만나보세요

날마다좋은날,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9월 9~12일 동국대 중강당서
‘불교, 대중 속으로’ 주제 진행
개막작 ‘아프리카의 부처’ 선정

초가을,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불교영화 33편이 대중을 찾는다.

2024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집행위원장 최진수·정달영)가 올해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총 4일간 서울 동국대 본관 중강당(만해홀)에서 개최된다.

‘불교, 대중 속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는 심오한 불교 교리를 다루기보다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3개국 33편 영화를 선보인다.

개막식은 9월 9일 오후 7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개막작은 〈아프리카의 부처:Buddha in Africa〉이다. 〈아프리카의 부처〉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세워진 중국계 불교 고아원 이야기를 담고 있다.


2024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 개막작 〈아프리카의 부처〉 한 장면.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영화를 소개하는 ‘관객과의 만남’ 시간도 마련됐다. 9월 10일 오후 6시에는 종교인이 된 건달들의 유쾌한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 〈목스박〉이, 9월 11일 같은 시간에는 사찰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그린 〈더 납작 엎드릴게요〉가 상영될 예정이다.

국내외 불교 단편영화들도 관객을 찾는다. 9월 10~12일 오전 9시부터 상영되는 단편 컬렉션 Ⅰ·Ⅱ·Ⅲ에서는 국내외 불교 단편영화 중 엄선된 23편의 영화가 국내에는 처음으로 소개된다. 실제, 이번 영화제는 전세계 110개국에서 1730편의 단편영화가 지원했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상영작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막식은 9월 12일 오후 6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진행된다. 폐막작은 영화 〈컵〉으로도 유명한 키엔체 노르부 감독의 〈루킹 포 어 레이디 윗팽스 앤 어 머스타쉬(Looking for a Lady with Fangs and a Moustache)〉다. 해당 작품은 네팔의 한 성공한 사업가가 버려진 사원을 유럽식 카페로 개조하면서 발생한 사건들을 담고 있다. 영화는 와이드 스크린과 우아한 구도로 보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는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예매는 영화제 홈페이지를 방문해 구글폼을 작성하거나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배너를 통해서도 예매할 수 있다. 현장 발권도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 없이 영화제에 방문하면 주최 측에서 현장 발권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예매 사항은 세계일화불교영화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천 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선의 정수!
격절록 역주
원오선사가 한 철 안거 동안 제자들의 확철대오를 위해 설한 법문으로, 선종의 종장인 설두중현과 원오극근의 언어도단, 촌철살인의 자유자재한 경지를 맛볼 수 있다.
원오극근 지음, 덕우 강승욱 역주/신국판/양장/624쪽/값 35,000원

아비달마 수행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설일체유부의 수행도론
초기경전과 아비달마 논서를 분석하여, 유부의 수행도론은 5온에 대한 단계적 통찰과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유부의 이론과 수행의 전모를 조망하였다.
김경희 지음/신국판/양장/320쪽/값 23,000원

초기불교 수행자는 가족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인도불교 사원 생활과 가족 관계
율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초기 인도불교 승가에서의 가족 관계에 대한 우리의 상식과 관념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뒤흔드는 파격적인 연구서!
쉐인 클라크 지음, 임은정 옮김/신국판/무선/400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14~8/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성철스님의 돈황본육조단경	성철 스님	장경각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7	중론:산스끄리뜨계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3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8	연꽃법화경(개정판)	원순 옮김	법공양
4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9	능엄경대의 풀이:우주와 인생의 진리근원을 밝힌(증보판)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5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6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10	초기불교이해	각묵 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책세상

삶 그대로가 수행…고우 스님의 아름다운 여정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
박희승 지음
조계종 출판사
1만 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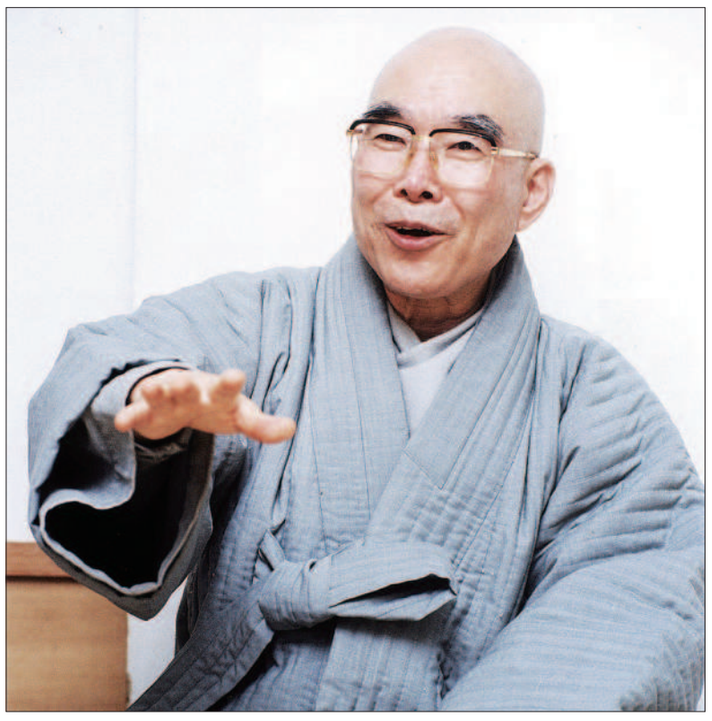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현대 한국불교에서 간화선을 대표하는 선지식 고우 스님(古愚, 1937~2021)〈사진〉의 열반 3주기[(2024. 8. 25(음 7.22)]를 앞두고 스님의 수행 일대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고우 스님께서 1961년 불치병을 만나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절에 갔다가 불교를 만나 간화선에 발심하여 평생 정진하다가 깨달음을 이루고 법랍 60세로 2021년 열반할 때까지의 수행 일대기를 담고 있다.

고우 스님은 당대의 대선지식 향곡 스님, 서옹 스님, 성철 스님, 서암 스님을 가까이서 모셨다. 1969년 수좌 도반들과 봉암사에 들어가 제2결사를 하여 지금의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의 기틀을 만들었다. 스님은 봉암사가 구산선문(九山禪門)과 결사의 전통을 이어서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이 되도록 외호했다. 전국선원수좌회의 공동대표를 맡아 간화선풍 진작을 위해 평생 애쓰신 간화선 선지식이다.

고우 스님은 선원에서 소임을 살면서도 수행의 본분사인 수행에 충실했다. 1971년 심원사에서 공 체험을 하고는 스스로 돈오하여 깨쳤다고 생각했고, 1975년 남해 용문사 염불암에서 돈오돈수 대장인 성철 스님에게 "돈오점수(頓悟漸修)가 맞지 않습니까?" 하고 대들기도 했다. 그러나 1987년 각화사 동암에서 홀로 정진하다가 백척간두 진일보의 뜻을 깨치고는 비로소 돈오돈수(頓悟頓修)가 선문(禪門)의 정통임을 알게 됐다.

1987년 해인사에서 수좌 도반들과 선화자 대법회를 열어 간화선풍을 크게 진작했으며,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맡아 간화선풍의 선양과 대중화에 진력했다.



고우 스님은 70세가 돼 경북 봉화 문수산에 작은 암자 금봉암을 창건했다. 기도, 불공이나 천도재는 물론 부처님오신날 연등조차 달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 며 법회와 참선 수행만 했다. 평생 참선한 선승임에도 불교의 근본 중도와 선(禪)의 가치를 전하는 데 열성을 다해 노구에도 전법을 위해선 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 책은 고우 스님을 20년 가까이 모신 재가 수행자 박희승 작가가 한국불교 현대사와 관련지어 담담한 필체로 정리한 것이다.

고우 스님의 탄생부터 군대에서 병을 얻게 된 이야기와 출가, 강원 공부 과정, 현대 선지식들과의 문답과 일화, 수행 체험과 깨달음, 공심으로 일한 봉암사·조계사 소임 살이와 10.27 법난 수습 이야기, 두 번의 깨달음과 성철 스님과의 짧지만 인상적인 법거량 인연, 간화선의 지혜와 대중화에 쏟은 열정 등이 총 4장에 걸쳐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삶이 그대로 수행이었던 선사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겸 사무총장인 박희승 저자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20여 년간 종무원 생활을 하다가 고우 스님을 만났다. 불교인재원에서 생활 선명상 입문-심화-전문-지도사 과정을 6년제로 운영하며 유튜브 채널 '생활 선명상'을 통해 화두 선명상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

어린이 마음에 동화로 심는 부처님 마음



동화로 읽는 부처님 마음
오해균 글, 김승연 그림
운주사 / 1만6천원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요? 부처님은 길 찾는 사람에게 길이 되어주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고, 세상을 맑고 밝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신간 〈동화로 읽는 부처님 마음〉(대원불교문화총서 5권)은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으면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시나브로 느끼게 하는 동화책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고 행복한 길인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게 한다. 물론 온 가족이, 전 세대가 함께 읽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책 〈동화로 읽는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사랑', '부처님과 함께', '삼국유사 속 불교동화'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장독대', '부처님은 스마일 운동가' 등 20편의 동화가 실렸다.



동화 형식 통해 부처님 가르침 심어
어린이의 바른 성장 인도하는 동화
15편 순수 창작, 5편 삼국유사 개작

이 책의 키워드는 '부처님'과 '동화'이다. 즉 내용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동화라는 재미있는 형식을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어린이가 읽고 듣는 동화는 엄마의 밥상 같아서 우리 어린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꼭 필요한 마음의 영양제라고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어린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마음의 영양제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라고 말한다.

책에 실린 20편의 동화 중 15편은 순수 창작동화이고, 5편은 〈삼국유사〉의 내용을 개작한 것이다. 한 편 한 편 동화를 읽다보면, 어느새 부처님과 친숙해지고, 그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진다.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행복한 삶인지 느끼게 해준다. 자비, 연민, 공감, 사랑, 기도, 효도, 더하여 재미와 교훈, 상상력까지. 그리고 덤으로, 마치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가슴이 따뜻해져 온다.

이 책의 최대 장점이자 목적은 부처님과 친숙해지는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용 불교동화가 부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 책의 가치는 더욱 뚜렷해진다. 이 책이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싹트게 하는 마중물이 되어주고, 나아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박재완 기자

설잠 선사 김시습의 다선일미, '초암다도'



초암다도의 창시자 설잠선사
최덕중 지음
민속원 / 2만3천원

설잠, 〈금오신화〉 쓴 김시습
용장사 초암다옥서 다도 완성
일본 도시모 지우까이에 전해

"우리는 다도의 선(禪)을 이야기할 때 흔히 조선 말기 추사 김정희 선생과의 교류로 유명한 초의 선사를 떠올리지만 그에 훨씬 앞서 조선 세종과 세조 년간에 살았던 설잠 선사가 다도를 중심으로 다선일미를 처음으로 실천한 선사임을 알게 되었다."

신간 〈초암다도의 창시자 설잠선사〉는 설잠 선사와 그가 창시한 '초암다도'를 소개한다. 설잠 선사는 생육신 중 한 사람이며, 〈금오신화〉를 쓴 김시습이다. 그는 1457년 23세 때 문경의 설잠산 혜국사에서 혜기 화상을 은사로 출가했다.

저자(본명 최덕중, 법호 무창산)는 남장사 주지로 있을 때, 대웅전 천정에서 목함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설잠요감〉이라는 유고집이 들어 있었다. 저자는 그 후 설잠 선사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 50년 만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

저자에 따르면 설잠 선사는 31세 때 경주 남산에 용장사를 짓고 이후 부속건물인 초암다옥에서 다도 작법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를 일본 승려 도시모 지우까이에게 전했으며, 그의 다도작법은 일본 다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

책은 설잠 선사의 탄생, 수행과 은둔의 시간을 조명하고, 초암다옥, 다당, 다로, 병표, 다완, 향, 다화, 찻상과 다탁, 달이는 법 등을 소개한다.

박재완 기자

신간

최고의 『화엄경』 주석서, 『화엄경소론찬요』!
혜거 스님의 군더더기 없는 직역으로 만나다!

『화엄경소론찬요』(華嚴經疏論纂要) 17~21권 출간



혜거 편저 | 각 권 30,000원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엄경』의 가르침

『화엄경』은 부처님 세계에 대한 참모습을 밝히며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누구이며, 이 세계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화엄경소론찬요』에 명쾌하게 펼쳐져 있다.

2016년부터 출간된 『화엄경소론찬요』는
내년 2월 완역(총 26권)될 계획입니다.

편저 혜거 스님 _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평생 공부와 참선을 통해 자기 수행을 강조해온 스님은 경전 번역에 매진하는 한편, 1988년 서울 강남에 금강선원을 개원했다. 현재 금강선원 선원장을 비롯해 한국전통불교연구원 원장,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등을 맡고 있으며, 2018년 제30회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寶鏡湖 맑은 물이 사바를 적시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生涯如夢若浮雲(생애여몽약부운)하니
活計都無絶六親(활계도무절육친)이로다
留得一雙淸白眼(유득일쌍청백안)하야
笑看無限往來人(소간무한왕래인)이로다

생애가 꿈과 같고 뜬구름 같으니
살길을 모두 잃어 육친이 끊어졌도다.
오직 한 쌍의 청백안을 얻어서
무한히 왕래하는 사람을 웃으며 보도다.

하안거를 해제하고 산문을 나서는 수선납자여!

지난 여름 참으로 더웠으나 선방은 오히려 서늘했고 구룡지 백일홍은 더욱 붉게 피었도다.

이러한 인연은 불조의 가피가 충만했고 시주의 은혜가 지중하였으며 육화로 화합하며 정진한 대중의 마음이 간절하여 이루어졌도다.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보경호에 고인 물은 영축산을 가득 품고 영산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게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영축산의 소식을 묻거든 '영축산중에 드넓은 보경호는 그 경관 무진하여 저절로 밝게 드러난다'라고 답 할만 하리라.

삼하결재를 성만한 수행대중 모두가 보배 거울을 갖추었으니 행주좌와가 모두 법답고 어묵동정이 모두 인천의 사표가 되며 세간의 희망이 되리라.

晨朝喫粥齋時飯(신조끽죽재시반)하며
渴則呼兒茶一椀(갈즉호아다일완)이로다.
門外日沈山寂寥(문외일침산적요)하니
月明窓畔白雲散(월명창반백운산)이로다.

아침에 죽 먹고 재시에 밥 먹으며
목마르면 시자 불러 차 한잔 마시노라.
문밖에 해 지고 산은 고요하니
창가에 달은 밝고 흰 구름은 흩어지네.

수행인에겐 결제와 해제 따로 없다

태고종 종정 운경 스님



삼복(三伏) 고열에 종도들의 쉬임 없는 정진에 무한 칭송을 드립니다.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좌님들과 강원 학인, 그리고 각기 다른 처소에서 자기 형편에 맞게 원력을 세우고, 정진하는 모든 종도들에게 크게 치하 드립니다.

불교는 깨침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보는 것을 바로 보는 것[正見]이 깨달음이고, 그 깨달아 보는 자기[主人公]를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하안거(夏安居) 결제 시에 중국의 방(龐) 거사 가족이 본분 소식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시현했습니다.

방 거사는 "어렵고 어렵다"고 했고, 방 거사 부인은 "쉽고 쉽다"고 했으며, 딸 영조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각기 터득한 심오한 경지를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내가 그 때 그 세 분의 표현이 불조께서 일러 주신 참진리에 한 치도 빈 틈이 없는 현현도리와 역역한 도리를 이르셨다고 했는데, 근자에 어떤 도인은 그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위의 세 분들에게 각기 20방(棒)을 때리겠다고 일갈하였습니다.

나는 위 세 분이 이르신 참도리나 뒤에 이르신 표현에 그저 '우습다'로 시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두이고 '시심마(是甚麽)'입니다.

하안거 결제 동안 열심히 탐구하고 두문불출하면서 공안을 놓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선(禪)은 깨달은 소식에 접하면 즉시 앞서 간 사람에게 물어 진(眞) 위(僞)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공안을 다잡아 놓치지 않고 탐구하고, 답에 이르면 또 다시 묻고 탐구하기를 끊이지 않게 계속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행인에게는 결제와 해제가 따로이 없으니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정진의 끈을 놓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화살입니까?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석공장궁(石鞏張弓)하고.
삼평발흉(三平撥胸)이라.
중야중야(中也中也)여.
호탄대충(虎呑大蟲)이로다.

석공은 활을 당기고 삼평은 가슴을 폈네.
맞았다. 맞았다 함이여! 범이 호랑이를 삼켰도다.

석공혜장(石鞏慧藏) 선사의 회상으로 삼평의충(三平義忠) 화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석공이 활시위에 화살을 걸고서 삼평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간전(看箭)하라. 화살을 잘 살펴 보거라."

그러자 삼평은 대뜸 가슴을 열어젖히고는 '쏠 테면 쏘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석공과 삼평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법 거량을 위한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유시살인전(猶是殺人箭)이어니와 여하시활인전(如何是活人箭)이닛고?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화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화살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석공선사는 활시위를 세 번 두드렸습니다. 이에 즉시 삼평화상이 절을 올렸습니다.

"삼십 년 동안 활 하나에 두 발의 화살을 장전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사 겨우 공부인을 만났구나."

석공 선사는 사냥꾼 출신으로 마조 스님을 만나 화살법문을 듣고서 발심하여 출가했습니다. 안목이 열린 후에는 강서성 무주(撫州) 석공산에 머물면서 종풍을 널리 선양했습니다. 사냥꾼 출신답게 과격하지만 목숨을 건 간절한 자세로 수시로 활을 들고서 화살 법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평 화상을 만난 이후로 필요가 없어진 활과 화살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리하여 30년 화살법문을 회향한 것입니다.

똑같은 화살인데 때로는 살인전(殺人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활인전(活人箭)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화살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화살이 되기도 합니다. 사냥꾼 석공의 살인전은 마조 선사를 만나면서 활인전으로 바뀌었고 다시 석공 선사의 살인전은 삼평 화상에게 이르면서 활인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화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해제를 하고서 만행을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살인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살인전을 만나더라도 이를 바로 활인전으로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결제를 마친 힘 있는 공부인이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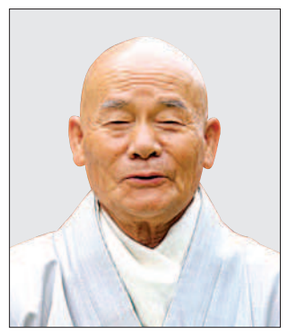
대도불입경인랑(大都不入鷩人浪)이면.
도료난심칭의어(到了難尋稱意魚)니라.

놀란 사람이 파도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마음에 드는 고기를 끝내 얻기 어려우리라.

8월 18일 하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는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한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목탁·죽비소리가 부처님 친설 법문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상략〉

"세계는 한 송이 꽃, 한 생각, 이~뭘까? 참선이 이 문중의 골수" 만공 스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禪에 명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마라.

禪, 시심마, 반야 禪 한마디에 티끌먼지까지 부처님이 되어 천지가 진동합니다.

순수무잡, 한 덩어리, 두두가 부처님이요, 물물이 큰 눈 달마로다.

법대로 그때그때 맞게 백억 호법선신이 호위하네.

정혜사 능인선원 바위 위에 터진 시야. 스님은 탄식합니다. "숨길 데가 없네, 놓치면 객지다, 놓치면 죽은 목숨이다."

선지식의 향기가 산중에 꽉 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자가 누구인가?

보고 듣고 응하는 이 물건 이놈이 누구인가?

이뭘까? 이~ 하는 이 자체, 돌이키고 돌이켜라. 백 천 만 번 돌이켜라.

언제나 새 맛이다. 막 터진 새 천지다.

이 자리, 응하는 이 자리, 일념 만년

확실해져서 당당해져서 고개가 펴지고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자는 것도 먹는 것도 廢寢忘餐, 얼마나 한가한가, 얼마나 넉넉한가!

견줄 데가 없어 유아독존, 무릎을 칩니다.

가고 오고 굽혔다 폈다, 來往屈伸이 바람
숨 쉬게 하는 바람
움직이니 대행 보현보살
지수화풍 사대의 머리, 바람
육도문중에 뜨거운 가슴, 보시

보시는 심장이 뜨겁습니다.

생명의 숨길, 바람

結制, 解制가 납자한테는 하늘 땅 같은 감동의 바람입니다.

생명의 바람, 일체를 살게 하는 통풍

대중생활은 환희심이요, 통풍입니다.

소소한 일상이 보살행입니다. 화두요, 바람입니다.

목탁소리 죽비소리가 부처님 친설 법문입니다. 장군죽비 경책입니다.

예불, 발우공양, 울력

업장이 순화되는 일색의 용광로요, 활기요, 신바람입니다. 응관입니다.

풀잎도 새소리도 대종소리같이 웅장합니다.

應觀 이~뭘까? 아,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어주고 참아주고 만고의 넉넉한 이 주인공!

주고 또 주니 보살행입니다.

이(是)~로 회복되어 일이 없는 이 마음

가벼워 더욱 뚜렷해지니 납자의 제자리

이 공부가 돌아가니 나날이 살맛이요, 수지맞는 재미로다.

세상만사 가지가지 많고 다양해도 보고 듣는 당체는 적적입니다. 〈하략〉

여여한 도리 안다면 일상이 '극락정토'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상략〉

부처님께서는 안거가 끝난 대중들에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나지 말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진리를 전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에 길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정법을 바르게 전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來時如如 去如如하니
無來無去 亦如如니라.
欲識如如 本來道인데
日常生活 如如道니라.

와도 如如(여여)하고 가는 것도 如如(여여)하다.
옴도 없고 감도 없는 것도 如如(여여) 함이요.
如如(여여)한 본래 도를 알고자 하는가?
일상생활 그대로가 如如(여여)한 도니라.

如如(여여)하다는 것은 물에다 물을 더한 것이고 허공에다 허공을 더한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가고 올 뿐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이다.

如如(여여)한 도를 논하고자 한다면 가고 오고 일상생활 이대로가 다 如如(여여)할 뿐이다.

부처님 모습은 옴도 없고 감도 없는 것이다.

금강경에 형체 있는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참 부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형상으로 부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부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단지 如如(여여)한 곳에서 오신 분이다.

부처님을 형상과 모양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가고 오고 이대로일 뿐이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움직이게 마련이다. 바람이 그치면 나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으로 생각을 만들고 생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

어떠한 가식도 꾸임도 없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如如(여여)한 곳에서 오셔서 여여하게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여래하고 하는 것이다. 여여한 이 도리를 분명하게 안다면 일상생활이 如如(여여)한 극락정토이다.

중국선종의 초조는 달마요 이조는 혜가 스님이고 삼조는 승찬 대사이시다.

오늘은 사조 도신 대사의 어린 출가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도신 존자의 성은 사마요. 하남에서 태어나서 기주 광제현에서 살았다. 어려서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다.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궁구하다가 도신이 승찬 대사를 찾아간 것은 13세의 사미 시절이다. 어린 사미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자신의 문제를 큰스님께 말씀을 드렸다.

"큰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길을 열어주소서."

"누가 너를 속박하였기에 해탈하고자 하는가?"

"큰스님 아무도 저를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너를 속박하지 않았다면 무슨 해탈을 구하는가?"

큰스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열여섯 어린 사미가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자유인이 된 것이다. 이 대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누가 나 자신을 속박하였는가?

아무도 나를 속박한 사람은 없다.

아~ 나를 속박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신이다. 자기가 자신을 속박한 것이니 스스로 자신의 속박을 풀고 나와서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하략〉

“大信心 일으켜라…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 제6강

‘지금부터 걱정을 사라지게 한다’

여름휴가 관계로 지난 2주간 휴식기를 가졌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아카데미’가 재개했다. 8월 13일 ‘지금부터 걱정을 사라지게 한다’를 주제로 열린 제6강에서 진우 스님은 감정에 휘둘리며 생기는 업장을 녹이기 위해서는 탐진치 삼독심을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고, ‘삼수(三受)야 가라’ 명상법을 제시했다. 〈편집자 주〉

정리=신중일 · 김민재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8월 13일 열린 선명상 아카데미 제6강에서 법문을 설하고 있다.

결국엔 기분 好惡 문제로 귀결
감정 제로화해야 깨달음 이르러
업장 녹이려면 탐진치 해소해야
부처님 法 믿으며 선명상 실천을
‘三受야 가라’ 명상법 제안 ‘눈길’

첫 강의부터 지난 다섯 번째 강의까지 마음의 구조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현상계에 대해 말했다. 불교 유식적으로 보면 육경(六境)이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六根)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을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잘생겼구나’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식(識), 육식(六識)이라고 한다.

이를 합하면 십팔계(十八界)다. 십팔계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십팔계 안에 시간, 공간이라는 현상계가 존재한다. 시간은 삼세(三世), 구세(九世), 십세(十世)로 나눠진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져, 삼세라 하고 과거, 현재, 미래 각각에 삼세가 있어 구세가 된다. 이에 찰나를 더하면 십세가 된다.

여러분이나 나나 마음이라고 하는 소위 감정·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육근으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을 소위 대상, 현상, 실재, 실존이라고 한다. 지금 현재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걸 소위 인과라고 하여 원인과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것이 현재에 나타나도록 하는 내 생각이나 마음 감정 이것이 통틀어서 업이라 한다. 그것은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부모의 유전을 내가 지금 받고 부모의 유전은 그 선대의 유전을 이어온 것이다.

현재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 덩어리, 카르마(업, Karma), 아뢰야식(阿賴耶識) 원리로 보면 과거로부터 이어져야만 지금 현재가 지속된다. 과거로부터 단절된 현재란 없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그 업식 덩어리가 과거에 의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있었으니 당연히 미래에도 있는 것이다.

나의 신체는 이합집산(離合集散)된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에 비교를 해보면 유유상종(類類相從), 서로 끼리끼리 같은 성질 것들이 모인다. 소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로 보면 내가 이제 생각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갖게 되면 거기에 따라 연결된 어떤 것들이 서로 모이게 되어 있다.

요즘 현대 물리적 양자역학으로 보면 소위 원자설이라 한다. 모든 물질은 원자가 서로 모여서 형성이 되어 있다. 여러분이나 나나 원자 덩어리다. 닐스 보어의 경우 원자의 모양을 발견했다. 원자라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작다. 원자가 운동장만 한다고 하면, 운동장에 있는 작은 구슬 하나가 바로 원자핵이다. 그 원자핵보다 10만 배 작은 것은 핵을 중심으로 도는 전자다.

지금 양자역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 불교의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은 그때 당시부터 다 설명하셨다. 그것이 〈법성게〉로 나오고 원효 스님 같은 경우 〈기신론〉으로 정리했다. 내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별거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봤자 생로병사(生老病死), 성주괴공(成住壞空)을 면치 못한다. 원자 자체도 그 작은 알갱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것이 인연, 원자들이 서로 모였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다. 우리 몸도 그렇게 모인 것이다.

원자적으로 보면 원자들이 모여 모양이 생긴 것이다. 그것은 우리 몸과 모습이 생겨난 것조차 과거, 전생의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서 유유상종 되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일체유심조, 만법유식(萬法唯識)이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기도 한다. 이 현상계가 그런데도 별거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육근으로 육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조차도 내가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기분이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좋은 기분, 나쁜 기분, 좋지도 싫지도 않은 삼수(三受)가 있다. 좋지도, 싫지도 않은 사수(捨受)를 제외하면 이것을 고락의 기분, 감정이라 한다. 인간, 모든 동물, 모든 것들은 감정으로 좌지우지된다.

말하고 있는 나나 여러분들도 그나마 그중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가장 기분 좋다고 결정된 것이다. 만약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 기분이 나쁘고 싫으면 다른 것을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찰나 찰나가 기분, 고락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

마음의 구조에 대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이야기해 왔다. 결국은 그 마음도 내가 기분이 좋으냐 싫으냐로 귀결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 현상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소위 연기법, 인연생기에 의해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연기의 일환이다. 문제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기분이 나쁘냐 좋으냐, 이게 고락(苦樂)의 업덩어리다.

고락의 인과 작용, 감정을 완전히 제로화해야 견성·성불·깨달음에 이른다. 어떤 현상 보고 듣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분 나쁜 일도 없는 상태가 업장 소멸이다. 업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다. 기분 좋은 업이 하나 생기면 기분 나쁜 업도 똑같이 생겨서 그게 지금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육근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이제 기분 나빠 괴롭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먼저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다. 대상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거나(탐심) 화를 내거나(진심) 내가 어떻게 하면 유리하고 내 차지가 될지 고민하는 치심을 없애야 한다. 그러니 항상 눈으로 보고 듣고 할 때 순간순간 방하착하라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어떤 행동과 생각을 하든 지금 찰나찰나 일어나는 아주 좋다, 싫다는 감정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래야 과거의 인과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몰록 탈출하는 것을, 그것을 화두타파, 타성일편(打成一片)이다. 그래서 선 중에서, 명상 중에서 최고는 간화선(看話禪)이다.

간화선은 화두를 든다고 한다. 반드시 화두타파를 하고 인과를 벗어나리라고 결심하는 것을 의정이라 한다. 이것이 오롯하게 모여지는 것을 의단(疑團), 의단독로(疑團獨露)라고 한다. 이것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화두가 타파된다. 〈선요〉에 보면 ‘삼요’가 있다. 부처님 말씀을 철저히 믿는 것, 이 내용을 완전히 체득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를 대신심이라 한다. 대신심이 생기면 화두를 타파하고 말리라는 대분심이 생긴다. 그런 후 의정, 대의심이 생긴다.

서옹 스님은 은산철벽, 금성벽 그 단단한 수천 억 년 나도 뚫지 못할 벽을 단번에 투과해 버린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생사가 사라진다. 내가 화낼 일이나 기분 나빠할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 지금 당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나나, 여러분이나 육조 혜능 스님 같은 근기가 되지 않는다. 부처님도 500생 동안 환생을 하면서 수행했다.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부터라도 한꺼번에 화두타파, 타성일편하면 좋겠으나 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명상부터 하라는 것이다. 하루에 5분 명상이든 무시로 명상이든 명상부터 해야 한다. 명상을 한다는 것은 삼독심을 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무조건 내 감정 덩어리를 편안하게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다.

일단은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게 삼독심의 첫 번째다.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기분 나쁜 모습을 보거나 듣게 되면 순간적으로 나의 업덩어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건 누구 탓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성인군자가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욕심을 내거나 내게 유리한 것만 쫓다 보면 반드시 과보를 받아 괴롭다. 유혹이 있는 경우 인과 과보를 생각해 놓는 방하착 명상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신심을 일으키는 즉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감정 상태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계속 기분 나쁜 것이 반복된다. 그렇게 되면 나의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명상을 해야 한다.

오늘의 명상은 ‘삼수(三受)야 가라’다. ‘삼수’는 고(苦), 낙(樂), 사(捨), 내 감정 덩어리이다. ‘삼수야 가라’는 시시비비하지 말고 감정에 놀아나지 말라는 의미다. 내 감정을 일으키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민감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인과와 분별에 걸리고 윤회에 걸린다. 나머지는 모두 부처님 뜻에 맡기면 된다. 인연 연기에 맡기는 것이다. 그 자체가 믿음이다.

진우 스님, 궁금해요

Q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선명상 보급 계획이 있나요.

A 계획이 있다. 국민적으로 선명상을 보급하고 싶다. 9월 28일 국제선명상대회 선포식도 하고 10월 초에 미국 뉴욕과 예일대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한국적 선명상, k-선명상을 강연하고자 한다. 정치인이나 사회적으로 높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너무 경쟁적이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다. 불편함, 불행을 느끼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교육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어릴 때 유치원 때부터 자기 마음을 개선할 수 있는 선명상을 보급해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각 학년에 맞는 선명상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한다. 앞으로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선명상을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심우장에 '만해역사공원' 조성 추진을

주목! 이 논문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

올해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열반 80주기를 맞는 해이다.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승려였으며, 한국문학사의 큰 족적을 남긴 문인이었던 만해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선양행사가 전국 각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지은 성북구청 학예사는 대각사상연구원의 〈대각사상〉 제41집에 기고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에서 성북구 소재 심우장을 중심으로 한 만해 스님 선양사업 방안을 제시했다. 그의 논문을 정리 ·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신중일 기자

지방자치제가 1990년대 시작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역사 ·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년)'이 최근 시행되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성북구 역시 지역의 주요 역사·문화콘텐츠인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과 만해 한용운 심우장(이하 '심우장') 콘텐츠를 활용하여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서 축제, 문학축전, 기념식, 탐방,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여 성북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주민의 자부심 고양, 지역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방향성 설정 필요, 타 자치단체와의 사업 중복문제, 성북 고유의 콘텐츠 부재 등으로 인하여 선양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만해 한용운과 심우장

만해 한용운은 1933년 벽산 스님이 집터를 기증하고 박광, 방응모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성북동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방 두 칸짜리 집을 지어 '심우장(尋牛莊)'으로 이름 지었다. '심우(尋牛)'는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 본성을 깨닫는 10단계의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일에 비유한 '심우도(尋牛圖)'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한용운은 성북동 깊은 산골짜기에 기거하며 '소', 즉 본성을 찾기 위한 '심우' 단계로 돌아가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였다.

당호 심우장의 '심우(尋牛)'는 본성을 찾기 위한 '심우도(尋牛圖)'의 열 가지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로, 한용운은 거처 공간을 심우장으로 이름 붙인 이유를 '초심구도'의 뜻을 표하기 위함으로 밝힌 바 있다. 초심으로 돌아간 한용운이 심우장에서 추구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한용운이 거주했던 심우장은 민족정신의 공간이었다. 일송 김동삼(一松 金東三, 1878~1937)이 경성형무소에서 사망하였을 때 심우장에서 장례를 치렀다.

특히 심우장은 대중과 함께하려 했던 한용운의 사상의 실천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소설들은 대중계몽과 교화를 위해 집필하였다. 또한 심우장은 당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한용운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성북동 깊은 골짜기까지 찾아온 항일사상가, 불교인, 문학가, 학생 등 많은 방문객의 고민을 들어주었던 대중과의 소통 공간이었다.

심우장을 중심으로 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위해서는 심우장을 독립을 위한 민족정신을 지킨 공간이자 자유, 평화, 평등 등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상을 이야기하는 공간, 그 사상을 대중과 함께하고자 본인의 신념을 지키며 실천했던 공간으로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용운의 사상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공간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성북구 만해 선양사업 현황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 입적 후 따님 한영숙이 관리하다 만해사상연구회에서 1981년부터 만해기념관을 건립하여 만해 사상 보급 운동을 펼쳐나갔다. 성북구에서는 1999년 따님으로부터 심우장과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복원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때부터 성북구에서 심우장을 보존·관리하였다. 2009년에는 문화재정밀실측조사를 통하여 『심우장 실측조사보고서』를 발행하였고, 2012년에는 심우장으로 올라가는 입구의 만해 산책공원에 이야기와 휴식이 있는 아트벤치를 제작하여 심우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관광명소 및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우장 정면 일부를 가리고 있던 벽돌 건물을 철거하고, 2016년 현재의 관리동을 준공하여 심우장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성북구는 심우장의 정비와 함께 2015년부터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으로 명명하여 관련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만해 한용운이 심우장에서 입적한 날짜인 6월 29일에 맞추어 매년 성북문화원과 정법사, 선학원 공동주관으로 함께 만해 추모 다례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만해 한용운의 출생일인 8월 29일에 맞추어 2015년부터 매년 만해사상실천연합



만해 한용운 스님 진영. 스님은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승려였으며, 한국문학사의 큰 족적을 남긴 문인이었다.

만해 스님 말년 거주 '심우장'
민족정신 공간이자 소통 창구
이에 맞는 선양사업 추진돼야
역사공원, 기념관 등 필요해
주민 참여 아카이브 구축 제언

와 함께 '만해평화문학축전'을 심우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만해 탄생 기념식뿐만 아니라 만해 한용운의 시낭송, 기념강연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만해 한용운의 자유, 평화사상을 알리고 있다.

성북구는 연중 만해 한용운의 문학사상과 독립정신을 심우장에서 배울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서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을 통하여 성인·가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만해 선양사업 추진방안 제언

만해 한용운의 사상을 계승하고 가치를 확산하는 기념 공간으로서의 심우장 가치 창출을 위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추진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심우장의 역사성과 가치를 계승할 수 있는 운영 방향과 관련 단체 간 협력 방안, 조직적·제도적 장치수립을 모색하여야 한다.

성북구는 자치단체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정책 방향 수립, 예산지원을 담당하고, 연구기관으로서 성북문화원, 대학교, 관련 연구소 등은 콘텐츠 발굴 및 고증, 추진기관으로서 성북문화원, 성북문화재단, 대학교 및 관내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과 연계한 사업 추진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심우장의 가치 계승과 지속 가능한 심우장 콘텐츠 발굴과 인력양성이다. 관내 대학교에는 역사·국문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학과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대학 내 한국사연구소, 민족문화연구원, 문화 예술 콘텐츠 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박물관들도 함께 운영되고 있어 원천콘텐츠 발굴을 위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예술, 미술, 전통문화 등 예술 분야의 학과들도 다수 운영되어 심우장 원천콘텐츠를 공연, 조형, 전시 등으로 문화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연계성도 풍부하다.

이런 풍부한 연구 인력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양성까지 힘쓸 수 있다. 지역의 자원을 주제로 한 수업은 지역에 애착을 두게 하고 각 지역의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가와 소통할 기회가 된다.

셋째,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 및 기관·단체들과 각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학술회의, 포럼 등과 같은 논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026년은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해에는 각 자치단체나 기관·단체에서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 기념행사나 사업들이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 공동 학술회의와 포럼을 통해 〈님의 침묵〉의 의의와 그 속에 담긴 조국독립과 민중구제, 자유·평화사상을 돌아보고, 〈님의 침묵〉 국가유산 등록 추진 등과 같은 공동협력 사업을 논의하여야 한다.

넷째, 한용운의 심우장 거주 시기 삶을 재조명하는 콘텐츠 활용 사업 추진이다. 심우장에서의 한용운의 활동을 폭넓게 콘텐츠로 활용함으로써 심우장의 장소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심우장의 역사성과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의 만해기념관과 역사공원 조성이다. 심우장 인근에 만해기념관을 건립하여, 전시 공간은 서울 권역에서의 한용운의 활동, 특히 심우장에서의 민족지사들과의 교류와 지조, 이 시기 문학 활동의 의의, 대중과 함께하려 했던 한용운의 사상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여섯째, 주민들의 참여 부분에 관한 부분으로 문화콘텐츠 사업 기획·실행 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심우장 일대가 재개발되어 주변 환경이 변화하기 전 심우장 주변의 환경과 주택들을 기록하고,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심우장에 대한 기억과 의미를 주민 구술인터뷰를 통해 아카이빙하여 심우장의 문화콘텐츠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우장을 성북동이라는 공간 안에서 더 입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고, 한용운이 입적했던 1944년에서 시간적으로 단절되는 것이 아닌 현재 주민의 삶과 이어지는 현재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심우장과 만해 한용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역의 콘텐츠는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고 향유할 때, 그 학문적 가치가 돋보이는 지역의 문화적 자원이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기초자료이다. 공간이나 예산의 제약이 있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성북마을아카이브' 혹은 향후 만해기념관 건립시 구축될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지은
성북구청 학예사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16 안동 연미사 제비원 석불



▶한줄 요약
더불어 살 때 미륵부처님은 이 땅에 오신다.

민초들 간절함에 나투신 미륵부처님

성주의 본향, 안동 제비원

경상북도 안동은 봉정사, 하회마을, 도산서원 등도 좋지만, 발길이 다소 뜸한 문화유산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다. 한때 철도 옆에 자리하여 늘 위태위태하였던 신세동칠층전탑, 구 안동역 옆에 자리한 동부동오층전탑과 당간지주, 승용차로 좁은 산길을 힘들게 올라가야 뵙는 옥산사마애여래좌상, 하회마을 옆에 위치하여 덜 찾게 되는 병산서원(백일홍이 만발한 8월 강추) 등이다. 물론 제비원 석불(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도 그 가운데 하나다. 마애(磨崖)는 암벽에 새겼다는 뜻이다.

지금 제비원 석불 주위는 솔씨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곳 안내석에 적힌 이야기를 약간 다듬어 보자.

옛날 이 자리에는 관리들이 출장길에 묵어가는 원(院, 여관)이 있었다. 일찍이 부모를 잃은 연이 처녀가 원에서 심부름하며 길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어느 날 부잣집 김씨 총각이 꿈속에 죽어서 저승에 갔다.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저승 창고에 재물이 쌓이는데, 너는 세상에서 못된 일을 많이 하여 저승 창고가 비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연이의 재물을 빌려 인정을 베풀어 그 죗값을 갚아라.' 김 총각은 저승 창고에 있는 연이 처자의 재물을 빌려 저승에서 인심을 썼다. 꿈에서 깨어난 김 총각은 예사 꿈이 아니라 생각하였다. 곧 연이를 찾아가 저승 일을 말하며 재물로 저승 빚을 갚았다. 연이는 그 재물로 큰 법당을 지었다. 대목(법당 짓는 이)이 법당의 마지막 기와를 덮고 제비가 되어 날아갔으므로 연비사라 하고, 원이름도 제비원이라 하였다. 아침저녁 법당에서 기도하던 연이 처녀가 38세의 나이로 죽자 바위가 갈라지면서 큰 돌부처님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연이의 혼이 변해서 지금의 미륵불이 되었다.

제비원 석불과 그곳에 자리한 사찰 이름 연(燕, 제비)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다. 현재 절은 연미사(燕尾寺)라 불린다. 요사채가 제비의 꼬리를 닮았으므로 연미사다. 그 외 연(燕)자 돌림으로 몇 가지 이름이 있다. 법당이 제비의 부리에 해당하므로 연구사(燕口寺)라 하였다. 옛날 불상을 보호하기 위한 전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비와 비슷하여 연자루(燕子樓)라 하였다. 지금도 바위에는 주춧돌을 놓았던 홈이 남아 있다. 누각의 전체 형태가 제비가 날아가는 모습이므로 연비사(燕飛寺)라 하였다. 한편 사찰이 위치한 산은 오도산(五圖山)이다. 오도(五圖)란 불상, 연자루, 삼층석탑, 연미사, 소나무의 다섯 가지가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안동 이천동 석불. '제비원 미륵'으로 불린다.

1608년에 작성된 안동의 읍지 〈영가지〉에 의하면, 연미사는 634년(신라 선덕왕 3년)에 창건되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고구려의 고승 보덕 스님의 11명 제자 가운데 '명덕 스님이 연구사(燕口寺)를 창건하였다'고 하지만, 현재 연미사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제비원은 옛날 이곳에 나라에서 마련한 여관에서 유래한다. 출장길 관리 등의 숙소였던 연비원(燕飛院)이 훗날 제비원으로 바뀐 것이다. 제비원은 성주풀이에 등장한다. "성주의 본향이 어디메뇨? 경상도라 안동 땅에 제비원이 본일레라. 제비원에 솔씨 받아…" 성주는 집의 건물을 수호하는 가신(家神) 중 한 분이다. 집을 하나의 성으로 보고, 성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성주라 한다. 성주신에게 내 어려움을 모두 알리고, 그의 도움을 받고,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그를 즐겁게 해드려서 소망을 이루고자 제사를 지낸다. 이를 '성주풀이' 또는 '성주풀이 굿'이라 하며, 줄여서 '성주굿'이라 한다.

민초에게 나타난 미륵부처님

제비원 석불은 부처님 몸을 새긴 바위 위에 불두(佛頭)를 올린 불상이다. 즉 높이 9.95m, 너비 7.2m의 암벽을 몸으로 하고 그 위에 2.43m 높이의 머리 부분을 조각하여 얹은 불상이다. 창건 당시 모신 불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조성 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정한다. 안동시 이천동에 위치하여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이라고 명명하지만, '제비원 미륵'으로 더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 울퉁불퉁한 석불 목 부분.

제비원 석불은 미륵불인지 아미타불인지 하는 논쟁이 있다. 간혹 처음에는 어떤 부처님으로 모셨는지 모르지만 이후 민초들의 간절함에 따라 미륵불로 불리는 경우가 있다. 안동 이천동 석불 역시 명확한 기록은 현재 없다. 즉 처음에는 어떤 부처님으로 조성했는지 모른다. '제비원 미륵'이라고 하듯이 안동 사람들에게는 미륵부처님이다. 그렇지만 아미타부처님이라는 주장도 있다. 자연 암벽에 새겨진 손을 자세히 보면,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위치하며, 두 손 모두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아미타부처님이 하시는 수인(手印, 손 모양)이다.

그런데 제비원 석불이 단지 민초들의 간절함으로만 미륵불이라 불리는 것은 아니다. 석불 뒤쪽 언덕에 있는 삼층석탑과 연결하여 미륵불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경전에 의하면, 석가모니부처님이 마하가섭존자에게 당부하셨다. '마하가섭존자는 열반에 들지 말고 기다렸다가 미륵불이 세상에 나타날 때 나의 가사를 전해주라.' 이에 존자는 계족산에서 긴 세월 선정에 들어 있다. 이후 미륵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석가모니부처님의 가사를 전한다. 그리고 곧 존자의 몸에 불이 저절로 일어나 열반에 든다. 이때 대중들은 존자의 사리를 수습하여 산꼭대기에 탑을 세운다. 따라서 제비원 석불은 미륵부처님이고, 삼층석탑은 마하가섭존자의 탑이라고 본다.

현재 사찰 측에서는 미륵부처님으로 모시고 있다.

석불의 목 부분이 울퉁불퉁한 이유

제비원 석불은 부처님 몸을 새긴 바위 위에 부처님 머리 부분을 올렸는데, 연결된 목 부분이 마치 염주를 걸고 있는 것처럼 울퉁불퉁하다. 이 울퉁불퉁한 목 부분과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형제가 세상에 뛰어난 조각가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서 제일가는 조각가는 둘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지기 싫어하는 형제는 내기를 걸고, 그 내기에 지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기로 하였다. 그 내기는 바로 석불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약속된 날까지 동생은 훌륭한 석불을 만들려고 열심히 돌을 갈고 다듬었지만, 형은 빈둥빈둥 놀기만 하였다. 약속된 날이 되자 동생은 그날까지 석불을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형은 석불의 머리만 만들어서 바위 위에 올려 불상을 완성했다. 내기에 진 동생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동생이 만든 미완성 석불은 개천 어딘가에 있다고 한다. 지금 제비원 석불의 목 부분이 울퉁불퉁한 것은 형이 머리 부분만 조성하여 이어 붙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임진왜란 때 일어난 이야기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도움 요청으로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군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왔다. 마침내 왜군이 물러나고 난리가 평정되자 이여송은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며 훌륭한 인물이 날 자리를 골라 혈(穴)을 끊었다. 그러다가 안동 제비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말이 우뚝 선 채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상하게 여긴 이여송은 주위를 살펴보니 근처에 큰 석불이 서 있었다. 저 석불 때문에 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여송은 칼로 석불의 목을 쳤다. 석불의 목이 땅에 떨어지자 비로소 말발굽이 떨어져 움직일 수 있었다.

석불의 목 부분에는 아직 가슴으로 흘러내린 핏자국이 있고, 왼쪽 어깨에는 말발굽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때 떨어진 목은 어느 스님이 와서 제자리에 갖다 붙였는데, 붙인 부분을 횟가루를 바르면서 염주 모양으로 울퉁불퉁 나오게 다듬어 놓았다.

이 땅에 도움을 주고자 온 명나라 장수에 대해 이처럼 좋지 않은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그 당시나 그 이후 조선과 중국의 불합리한 이해관계가 백성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앞의 이야기는 아마 예나 지금이나 경쟁 사회를 제비원 석불을 소재로 풍자했으리라. 김 총각이 연이 처녀에게 재물을 나눠줬듯이, 경전에 의하면, 더불어 살 때 미륵부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데….

〈불교학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985-9190	H 010-2813-8008
충청지사	유재상		H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96호 | 15 | 전면광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다 괴롭고,
구하는 것이 없어야
비로소 즐겁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속고승전》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 11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 주차가
- 매가 : 10억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60평 외
- 요사 : 60평 외
- 매가 : 35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 채무채권 상담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 당 :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 010-4001-847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원지
- 대지 : 약 530평 건물 3동, 탑 2기, 석등 2기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저온창고 5평
- 공양간 30평, 방 5개, 화장실 5개 스님 접견실, 주차공간 20대
- 가액 : 3억 3500만원

010-7364-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포교원 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국내외 자비봉사단. 육법공양단. 불교 합창단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02-733-566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 깨끗한 목조법당
- 매매 7억5천, 전세 4억
- 부동산 사절

010-8078-2102

사 찰 안 내

- 매매가 70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사찰 전세

- 위치 : 부산
- 사찰대지 250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 연수익금 7000만원, 주차시설 10대
- 전세금 2억원

010-4561-6368

사 찰 안 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4500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가액 9억 절충

010-9692-5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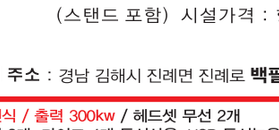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4길 144-17
- 대지 : 2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전망 좋고 신도 많음.
- 현재 운영 중,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대출 5천 안고 2억 8500만원

010-8643-523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쌍계동 321번지
- 대지 : 230평
- 건물 : 법당18평, 뒷편 방1, 창고 요사채20평(방2,거실,부엌,창고) 용왕당, 산신각, 법종, 탑 등
- 이마트 영천점 4분거리
- 가격 : 4억6천

010-5204-8176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염불전문 특수마이크 !

최신 디지털 유무선 염불전문 마이크 탄생!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항상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frac{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의 010-4648-8200

가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96호 | 16 | 전면광고

법을 들으면 그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하느니, 그 참뜻에 의거하고 문자에의거하지 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대보적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사람을 찾습니다

법명 : 공덕심 보살
나이 : 78세 (정해생)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010-3152-2732

불교의식(행사대행)

49재, 천도재, 예수재, 점안식
(법문, 바라, 나비무, 법고무)

초대해 주시면 불사 행사 성취에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암당 덕평
010-6219-4757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제1기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모집공고
(팔공산 범음범패 교육원)

모집대상
- 한국불교태고종 스님. 전법사. 교임 - 타종단 승려도 가능
- 불교신자 또는 부처님의 교법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

모집학과 및 교육내용
- 초기반 도량석, 종성, 예불, 삼보통청, 예불의식(법회 집전 의식)
- 전문반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재의식(시다림, 49재), 점안의식, 불교사물(목탁. 요령. 징. 북. 바라. 작법. 의식이론 등)

교육일정
- 초기반 개강일 2024. 8. 26(월) / 수료일 2025. 1. 21(화)
- 전문반 개강일 2024. 8. 27(화) / 수료일 2025. 1. 21(화)

교육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법당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93)

접수 및 문의처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298-3634)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교무국장 법륜스님
(010-9233-8371)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⑯ 차 음용 후 변화

“茶 여섯 모금에 신선과 통하노니…”



단원 김홍도의 신선도. 노동은 차를 마시며 신선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당나라 문인 노동, ‘다가’에 차 음용 효능 기술

“茶, 신선에 이르는 길”… 정신음료 가치 전해

숲 속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처럼 싱그럽고도 경쾌한 차의 풍미는 풍진 세상을 견디게 하는 위안의 산물이다. 이런 차의 가치를 노래한 문인들은 많지만 특히 9세기 당나라 인물 노동(盧仝, 795~835)은 차를 통해 고상한 삶을 구현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시의 기풍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삶이 곤궁하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아챘던 그였기에 숭산(嵩山)의 소실산(少室山)에 숨어 살며 세상살이에 곁눈질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출중했던 그의 시풍(詩風)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 기인함을 칭송하여 ‘노동체(盧仝體)라고 칭송되었다. 당송 8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한유(韓愈, 768~824)가 노동의 시체(詩體)를 숭상했으니 노동의 천재성은 이미 당대 대표적인 문장가에게 검증된 것이라 하겠다.

아무튼 산림에 은거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던 그는 차를 즐긴 인물로, 그의 벗 맹 간의대부가 귀하디귀한 차를 보내왔기에 감사의 정을 시로 드러낸 것이 바로 ‘맹 간의대부가 햇차를 보냈기에 마음 가는 대로 붓을 들어 감사를 표하며(走筆謝孟諫議寄新茶)’이다. 이 다시는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 차를 즐기는 이들이 차의 오묘한 진수를 파악할 수 있는 규범이었다. 그러므로 후일 차를 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의 공덕이 무엇이며 차가 사람에게 주는 이로움을 총체적으로 정의를 노동의 시 한 편에서 얻었으니 이런 그의 공덕은 육우(陸羽)의 〈다경(茶經)〉과 비견됐다.

차 문화를 집대성한 육우의 공덕은 특히 제다와 탕법을 바로 세운 것이며, 이로부터 본격적인 차 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에 못지않은 공덕으로 노동의 시는 차의 가치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평가된다. 이들의 공덕은 후대에도 길이 차의 가치를 칭송할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차의 오묘한 세계를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은 누누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좋은 차를 얻는 일이며 차의 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물이 있어야 한다. 이런 차의 원리를 터득했던 노동이기에 그 또한 좋은 물을 찾았던 흔적이 〈속다경〉의 지문 중에 보인다. 바로 “왕옥산(王屋山)에 대한 내용을 〈통지(通志)〉에서 살펴보니 옥천은 농수 위에 있는데, 노동이 여기에서 차를 다렸다(王屋山按通志 玉泉在瀧水上 盧仝煎茶於此)”라고 한 대목이 그것이다. 옥천은 좋은 물로, 차의 진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샘물을 말한다.

그렇다면 당대의 대표적인 다인이었던 노동은 〈다가〉에서는 차의 어떤 가치와 효능을 드러낸 것일까. 맹 간의대부는 노동과 어떤 친분을 나눈 사이였을까. 그의 〈다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먼저, 노동은 한낮까지 잠을 잘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바로 관직이나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일이 없었던 산림처사이다. 그의 고상한 인품과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움, 뛰어난 글 솜씨로 당시 그를 흠모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간의대부였던 맹 씨와도 깊은 우정을 나눴을 것이다. 맹 간의대부는 황제의 언로를 맡은 높은 관리로, 황제가 즐겼던 좋은 차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귀한 차를 노동에게 보냈을 터인데, 이는 월단차 300편을 편지와 함께 보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물론 높은 관직에 있었던 간의대부가 보낸 차이기에 포장 또한 특별하여 흰 비단으로 포장한 후 세 줄로 도장이 찍어 귀중한 물품임을 상징하였다. 더구나 이 차는 황제가 마신 후 그 나머지는 왕공에게 합당한 차이거늘 무슨 일로 산속의 사람에게 이르렀는가라고 한 대목은 그 자체가 노동의 감격을 일언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한편, 맹 간의대부가 보낸 편지를 개봉한 노동의 마음은 간의대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인 듯했다고 하니 얼마나 간절하게 소통하는 벗인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신분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사이지만, 항상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시공간을 초월한 우정을 나눈 지기(知己)이었다.

더구나 그의 〈다가〉는 9세기 무렵 서로 뜻이 통하는 벗에게 전하는 마음의 선물 중에 차만 한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무엇 때문일까. 바로 차는 사람의 심신을 정화하여 고르지 못한 몸과 마음을 평정하게 만들어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신음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의 〈다가〉에는 차를 마신 후에 몸과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느꼈던 것일까. 차를 마신 후 시차마다 변화하는 몸과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첫 모금을 마시자 입안이 윤택해지고(一碗喉吻潤), 두 번째 모금을 마시자 쓸쓸한 번민이 사라지게 하네.(二碗破孤悶) 세 번째 모금을 마시니 삭막한 마음을 더듬어 오직 오천 권의 문자가 살아나네.(三碗搜枯腸 惟有文字五千卷) 네 번째 모금은 가볍게 땀이 나면서 평소에 불편했던 일이 모두 털구멍으로 사라지네.(四碗發輕汗 平生不平事 盡向毛孔散), 다섯째 모금에서는 기골이 맑아지고(五碗肌骨淸), 여섯 모금 째에는 신령한 신선과 통하며(六碗通仙靈), 일곱 번째 모금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두 겨드랑이 사이로 스물스물 맑은 바람이 이는 것을 알겠네.(七碗喫不得也 唯覺兩腋習習淸風生)

위 내용은 차를 마신 후의 몸과 마음의 변화된 정황을 가장 상세하게 드러낸 것인데, 그의 시에서 묘사한 차의 진수에 대한 정의는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차를 마시는 연유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순수한 몸과 마음 상태로 돌아가 신선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차가 이런 경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잘 만들어진 차의 조건을 갖춰야만 느낄 수 있는 차의 경지이다.

그러나 좋은 차와 물, 숯불과 찻그릇 등이 잘 구비됐다 할지라도 차를 다루는 사람의 인품과 통찰력이 차의 진수가 잘 드러난 차탕을 만들어 낸다. 진정 차의 오묘한 세계는 차를 만들고 다루는 사람의 덕이 함께 드러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㉜

1. 참회의 의미와 자세를 설명한 것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원인을 살피면서 먼저 스스로 참회를 해야 한다.
② 과거의 잘못을 뉘우쳐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③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비교하여 잘잘못을 분명히 가린다.
④ 참회는 자신의 언어와 행동과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출발점이다.
⑤ 미래에 있을 모든 죄를 미리 깨닫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해설 : 참회는 오로지 자신 스스로의 잘못을 보는 것으로 상대방의 잘못이 있더라도 자신이 더 좋은 쪽으로 이끌 수는 없었는지 반성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책임의 전가는 참회의 요소가 될 수 없다.

2. 대한불교조계종은 2011년 3월부터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중에서 그 실천지침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일회용품 사용하기
② 이웃종교 바로 알기
③ 지역 결식아동 지원하기
④ 친환경 우리 농산물 애용하기
⑤ 우리 사찰(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

해설 :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운동은 수행·문화·생명·나눔·평화의 다섯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활동을 불자들이 솔선수범해 가는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이웃종교를 잘 알아야 하며, 나눔을 위해 지역 결식아동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생명, 자연을 위해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문화를 위해 우리 사찰(지역) 문화재 바로 알기를 실천할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은 생명, 자연의 가치를 지키는 것과 반대된다.

3. 다음 중 다섯 가지 중생의 마음을 정지(停止)시키는 관법인 오정심관(五停心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수식관 ② 부정관 ③ 자비관 ④ 인연관 ⑤ 사문유관

해설 : 오짐심관은 숨을 헤아리는 수식관, 육신 등의 대상을 부정적으로 관찰하는 부정관,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는 자비관, 원인과 결과를 관찰하는 자비관, 제법의 실상을 관찰하는 계분별관, 혹은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는 염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문유관은 부처님이 출가 이전 태자이시던 시절에 성(城)의 동남서북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과 출가사문을 관찰하시고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말한다.

4. 다음 중, 간화선(看話禪)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것은 ‘아집’을 없애는 것이다.
② 화두는 생각의 길, 말길, 마음의 길이 끊어진 본래 자리를 일컫는다.
③ 간화선은 조사들의 선문답을 화두(話頭)로 정형화 시켜 수행하고 있다.
④ 화두 삼매에 이르러 화두가 타파되면 그때부터 불교에 입문할 수 있다.
⑤ 화두 참구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대신심(大信心), 대분심(大憤心), 대의심(大疑心)이다.

해설 : 화두는 중국에서 탄생한 선종 특유의 수행방법으로 그 수행법을 최상승이라 하여 불교수행 중의 정점으로 본다. 화두의 타파는 곧 깨달음에 직결되는 말임으로 불교의 입문 단계에서는 바라기 어렵다.

5. 부처님 당시에 보름마다 자신의 허물을 대중 앞에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정기법회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자자(自恣) ② 포살(布薩) ③ 불공(佛供) ④ 공양(供養) ⑤ 수련회

해설 : 불교의 수행자는 15일 마다 모여서 대중생활에 관련한 여러 의식들을 치룬다. 이를 전체적으로 포살이라고 부른다. 포살 중에는 스님들의 계율을 다같이 합송하거나 여러 가지 법문, 대중의 결정사항 등을 결정하는 것 등을 모두 각종의 포살이라고 한다. 그중에 대중생활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스스로의 죄를 묻는 것을 자자포살이라고 한다. 즉 자자는 포살 안에 속하는 것으로 문제상에서 보름마다 자신의 허물을 대중 앞에서 고백하고 참회하는 의식은 자자포살을 말하지 그냥 포살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포살은 기본적으로 계율의 합송이 중심이다. 지문상에 다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정답 : 1. ③ 2. ① 3. ⑤ 4. ④ 5. ②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⑭ 진묘 스님의 '잔치국수'



▶한줄 요약
잔치국수는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매일매일 잔치처럼 살라는 뜻이다.

'매일 잔치처럼 살라'는 국수 한그릇

한 그릇의 이야기

"일찍 오셔서 점심공양을 같이 하시지요." 전화기 너머 진묘 스님(칠곡 정암사 총무스님)의 옅은 웃음소리와 함께 다정한 목소리가 전해졌다. 돌다리마냥 퐁당퐁당 이어진 인연길을 통해, 어렵사리 꺼낸 인터뷰 요청의 허락이 떨어진 것이다.

조용한 수행자의 일상에 대뜸 문을 두드리며 한 그릇 국수를 청하는 것. 그 위에 온갖 이야기가 듣고 싶다며 무작정 고개를 들이밀 때면 늘 조금은 부끄럽고, 또 송구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런 낯선 이의 발아래 다시 밑돌을 놓아주는 것. 그 또한 늘 청을 들어주시는 쪽이다. 그렇게 또 하나의 돌을 딛고 성큼 달려간 곳은 경상북도 칠곡의 정암사(주지 대현 스님).

백운산의 구릉들이 푸른 잎처럼 둘러싼 평화로운 땅. 정암사는 그 품속에 작은 꽃봉오리처럼 자리해 있었다.

정암사의 첫인상은 '곱다'는 감정으로 다가온다. 단정한 돌계단을 오르면 펼쳐지는 오붓한 전각들과 나무, 두 손 곱게 모은 자그마한 불상의 미소는 여여(如如)하다. 하지만 정암사의 고운 부분은 그보다 더 작은 틈새에 있다.

가지런한 돌담과 깨끗이 닦여 해바라기를 하고 있는 오래된 양은대야. 여전히 길이 잘 들어 보이는 가마솥과 이제는 몽땅해진 싸리빗자루가 그렇다. 잘 관리된 책이 가득한 책장은 불법을 찾는 이라면 누구에게라도 허락되는 것. 또 여느 전각 못지않게 잘 단장된 두 칸짜리 자그마한 해우소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부처님이 계신 곳이기에 정갈하고, 사람이 찾는 곳이기에 다정한 곳. 자그마한 틈새에도 아름다움이 머무는 세상, 그곳에서 진묘 스님의 '잔치국수'를 만난다.



마음의 맛

"국수요? 좋아하지요. 매일매일, 삼시 세끼를 국수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걸요."

공양간을 홀로 종횡무진하며 점심공양을 준비하던 진묘 스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난다. 순도 백 퍼센트의 '승소'를 마주하는 순간이다. 어린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스님의 국수 사랑.

오래전, 어머니가 손수 반죽에 콩가루를 넣고 만들어주신 국수는 얼마나 별미였는지!

"콩가루가 들어간 면은 시간이 지나면 가닥가닥 다 끊어져 버려요. 하지만 그것도 다시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는 거예요. 어린 제 입에는 그마저도 정말 맛있었거든요."

어린 딸을 위해 정성을 다해 만든 국수 한 그릇. 그것은 어쩌면 유년의 아이에게 '기쁨'이라는 맛으로 각인 되었는지도 모른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외할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제 딴에는 국수가 너무 맛있으니까, 할머니도 맛있는 걸 해드린다고 물만 가득 넣고 국수를 삶아 버렸지요. 결국다 불어서 먹지도 못한 채 버리게 생겼는데, 뒤늦게 오신 어머니가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망쳐버린 국수에 잔뜩 혼이 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것은 가만히 스님을 쓰다듬어준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였다.

"네가 국수를 삶았나, 할머니 드린다고 네가 이 국수를 삶았나, 하며 감싸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혼날 줄 알았는데 나무라지 않으셨어요(웃음)."

조용히 어린 딸의 마음을 헤아려준 그 뜻을, 스님은 이제 '공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회향한다.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어떤 마음을 담아.

일상적인, 하지만 특별한

"사찰에서는 저녁을 가볍게 먹을 때가 많아요. 지금 같은 여름에는 감자도 쪄먹고요. 그럴 때 잔치국수는 참 요긴합니다. 무엇보다 사찰에서 늘 떨어지지 않는 채소로 뚝딱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의 주재료는 이른 아침 밭에서 따온 여름 호박과 보시받은 당근, 그리고 새송이버섯이다. 먼저 세 가지 채소는 모두 먹기 좋게 채썰어 들기름에 볶을 것! 들기름은 당근의 쌉싸름한 맛을 없애는 것은 물론, 오메가3 함량이 높아 일반 기름보다 궁합이 좋다. 또 버섯을 볶을 때는 반드시 후추를 더한다. 버섯의 맛과 향은 살리고, 영양흡수를 더욱 좋게 하기 때문.

"다시마와 무, 표고버섯을 끓인 채수는 365일 떨어지지 않게 준비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언제라도 요리가 쉬워지거든요(웃음)."

정암사의 채수는 '끓인다'는 것보다, '달인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진한 색을 지닌다. 그렇게 준비된 채수는 국수를 낼 때까지 따뜻하고, 간이 더 되도록 바글바글 끓여 둔다. 이때 넣어주는 들기름 한두 방울과 정암사의 간장이 비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수를 재빨리 삶아내고, 양념장을 준비하면 모든 준비는 끝.

이제 고명과 국수, 채수, 양념장을 따로 담아 상에 올린다. 원하는 만큼 덜어 먹되, 허투루 버려지는 찬은 줄이고, 먹을 때나 보기에도 정갈한 이유다.

마침내 한 입 입에 넣는 순간, 근사한 향기가 입안에 가득 흐른다. 다소 심심할 거라 예상했던 채수는 오히려 간간하고, 구수한 국물에는 고급 한약재를 넣은 듯한 깊은 향기가 맴돌았다.

분명 여느 집 부엌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재료들.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로 전통방식으로 달여낸 정암사의 간장이 그 주인공이다. 옛 어른들이 여름철 열이 오를 때면 장독의 간장을 물에 타 훌훌 마셨다는 이야기가 비로소 이해되는 순간. 몽롱해지던 정신이 바짝, 더위에 답답했던 속이 쑥 내려가는 국수라니.

"맛이 괜찮습니까? 천천히 많이 드시고 가세요." 가만 웃으며 권하는 스님에게도 문득 좋은 향이 배어 나오는 것만 같다. 한 입, 또 한 입. 먹을수록 들뜬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한 그릇. 분명 어떤 마법 같은 힘이 담겨 있는지 모를 일이다.



진묘 스님은 이른 아침 따온 여름 호박으로 은사스님이 잘 드시는 잔치국수를 만들어 냈다.

진묘 스님의 잔치국수

재료 조선호박 1/2개, 당근 1/2, 새송이버섯 1, 무, 표고버섯, 다시마, 들기름, 국간장 (양념장: 국간장, 양조간장, 청/홍고추 각 1개, 참기름)

만드는 법
1. 무와 표고버섯, 다시마를 넣고 채수를 진하게 우려준다.
2. 호박, 당근, 새송이버섯을 같은 크기로 채 썰어 들기름에 볶아준다. 소금과 후추로 취향껏 간을 해줄 것.
3. 끓는 채수에 들기름 한 방울, 국간장으로 간을 한다.
4. 면을 삶은 뒤 찬물에 잘 식혀 물을 빼준다.
5. 국간장, 양조간장을 조금씩 섞어준 뒤, 다진 고추와 참기름을 더해 양념장을 준비한다.
6. 완성된 재료를 각각 접시에 담으면 완성.

날마다 좋은 날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학교 건물 2층에서 밖을 바라보는 데 문득 어디론가 떠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요. 지금도 잊히지 않는, 알 수 없는 마음이요. 그런데 3학년이 되고 또 한 번. 도대체 이 마음은 뭘까, 그렇게 헤매다가 10년이 지나서야 출가를 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 스님께 '금강경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던진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던 스님은 출가를 원하냐고 되물었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네, 스님" 하고 답을 했다.

가슴 속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던 찰나, 그날 이후 진묘 스님은 자신만의 종소리를 따라 길을 나섰다. 그리고 인연을 맺게 된 두 분의 스승님은 지금껏 진묘 스님을 지탱하는 커다란 기둥이다.

정암사의 창건주인 은사스님(대현 스님). 삶의 자투리 한 조각도 허투루 쓰지 않는 은사스님의 뒷모습은 진묘 스님이 가장 오랜 시간 바라본 일상의 풍경이다. 그리고 새벽 예불이 끝나면 그 누구보다 먼저 수행에 전념하시던 노스님(호관 스님/서울 금강암)의 형형한 죽비 소리 또한. 그런 스승들과의 기억과 시간을 진묘 스님은 '큰 나무 그늘의 고마움'에 비유한다.

첫 만남을 청하던 날 '우리 은사스님이 잘 드시는 국수가 있다'며 손꼽은 잔치국수. 그리고 제자의 손님을 위해 손수 과일을 깎아 슬며시 밀어주고, 가만히 문을 나서던 스승의 모습이 교차한다.

"잔치국수는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매일매일 잔치처럼 살라는 뜻이요."

진묘 스님이 건넨 한 그릇 국수에 어린 시절의 그 날처럼 기쁨이 전해진다. 맛도, 마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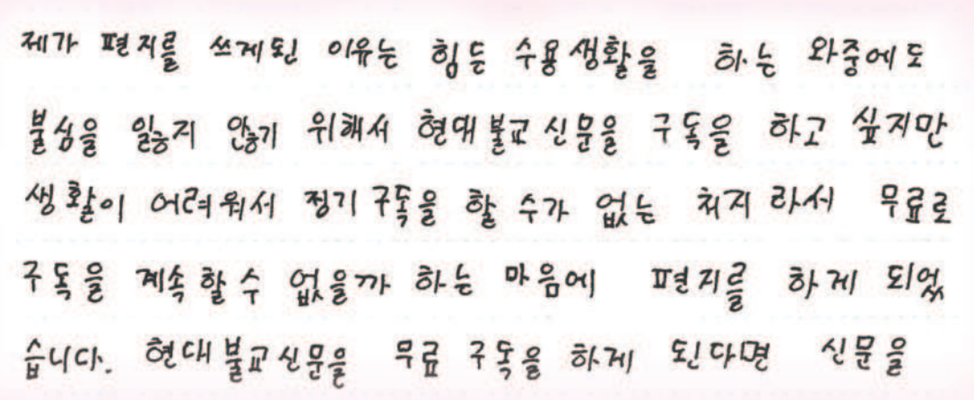
작열하는 태양은 뜨겁지만 어떠하랴, 산문을 넘어선 마음이 일렁이는 햇살과 함께 춤을 춘다. 날마다, 날마다. 〈작가〉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대행 스님

생활해가면서 자꾸자꾸 우리의 마음을 진화를 시켜야 합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일거일동,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그 살아온 습성 때문에, 살아온 관습 때문에, 그 이름에 걸려 그만 녹아 나는 거죠. 토정비결을 봤는데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나쁘다더라, 이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 이게 또 걸린 거죠. 점을 치니까 또 이런 게 이런 게 걸리지요? 또 누가 지난 일을 잘 맞추는데, 삼재가 들면 모두 그냥 언짢고 망하고 그런다더라 하면 여기에 또 걸리죠. 아예 의식적으로 아주, 의식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를 가도 방향을 봐서 가야 된다더라, 이것저것 뭐, 이루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거일동이 다 그래요. 좀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살 생각은 못 하구요. 아주 그냥 일거일동…, 머리는 요만한 데다가 그것까지도 전부 넣고 살아가려니 그릇이 꽉 차서, 좋은 것이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 법당에만 부처님 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불교라는 것이 목탁만 두들기는 게 아닙니다. '불(佛)'이라는 건 생명을 뜻하고 '교(敎)'라는 건 서로 전달하고 말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활 자체가 불교란 얘깁니다. 우리가 모두 죽고 살고 생활하고 이러는 것이, 그냥 그대로 불교고 종교란 말입니다. '여여하게 그냥 자유스럽게 살아라' 해서 인간으로 진화돼서 태어났고 "인간이 되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구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구실을 못 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소 타고 피리 불고 여여하게 돌아가는 것이 진리고 도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 가서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다 두고 어디 가서 도를 찾습니까? 역대 조사들한테서요? 역대 경설로 부처를 찾으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죠. 제일 처음엔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웠더니 인간이 돼 놓고 보니까 살림살이하기가 또 어렵더라. 살림살이를 하려니까 도구를 만들 줄 몰라서 막대기를 도구로 사용을 했다. 막대기를 사용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서 돌을 갈아서 쓰기도 하고, 뼈로도 그렇게 쓰고…. 그러다 구리가 더 단단할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 안 되겠으니까 또 철을 쓰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자꾸자꾸 발전하는 겁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진화되고 또 진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마음의 진화까지 바라게 된 겁니다, 마음의 진화! 이 모습은 일단 사람으로 진화가 됐으니까, 이제 정신적인 진화가 돼야 발전이 되고 창조력이 생기고 만물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대권을 얻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족한 거는요, 이 마음의 정신세계를 판단치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지금 일체 만물만생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포착했다면, 과학자들한테 가고 옴이 없이 전달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 안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딴 데다 지어서 살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구 안에서 부족한 재료를 딴 데서 끌어들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죠. 수명이 짧은 것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인간의 마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인간으로선 첨단의 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한 몸뚱이도 지탱을 못 하고 이렇게 간대서야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듣습니까? 자꾸자꾸 생활해 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진화를 시키고, 마음의 계발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해 보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이 중요한 재료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체험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체험을 안 해 보면 모릅니다. 아까 내가 잣 얘기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해 보지 않는다면 귀한 줄 모르고, 즐거운 줄 모르고 자유스러운 줄도 모릅니다. 생활고를 모른다면 그 고를 시원하게 대치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를 알아야 고를 해결하죠. 고라는 거를 모른다면 어떻게 대치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목이 컬컬하고 춥고 배고플 때 뜨거운 엽차 한 잔을 얻어먹는다면, 한 번 보세요. 뜨거운 줄 아니까 시원한 맛이 나지, 뜨거운 걸 모른다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걸 알기 때문에 시원한 맛을 압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어디서 오는 줄 알아야 대치를 하죠. 어디서 고가 오는 줄 알아야 대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구멍은 한 구멍밖에는 없다는 얘깁니다.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그 애고, 업장이 그냥 자동적으로, 한두 건이 아니라 천차만별로 나오는 데가 한군데밖에 없단 얘깁니다. 그러니 한군데다가 되놓으면서 '너만이 할 수 있어.' 할 때에, 바로 거기에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고 새로 입력이 되면서 그게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딴소리하지 마세요, 이제. 하하하…. 딴소리들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수차에 얘기했습니다. 일체 만물은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며, 지수화풍의 재료를 가졌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다고. 우리의 용도에 따라서 끌어쓰기에 달려 있다구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든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끌어 쓸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떠한 병명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엔 콧방귀를 탁 뀌고 '그건 이름일 뿐이야. 우리 몸속에서 일체 나 아님이 없는 나가 한마음에서 다 작용을 하는데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진짜로 믿고 말겠을 때, 한마음은 꺾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이란 건 꺾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라면 그냥 담박 꺾어집니다. 이 뜻을 아십시오.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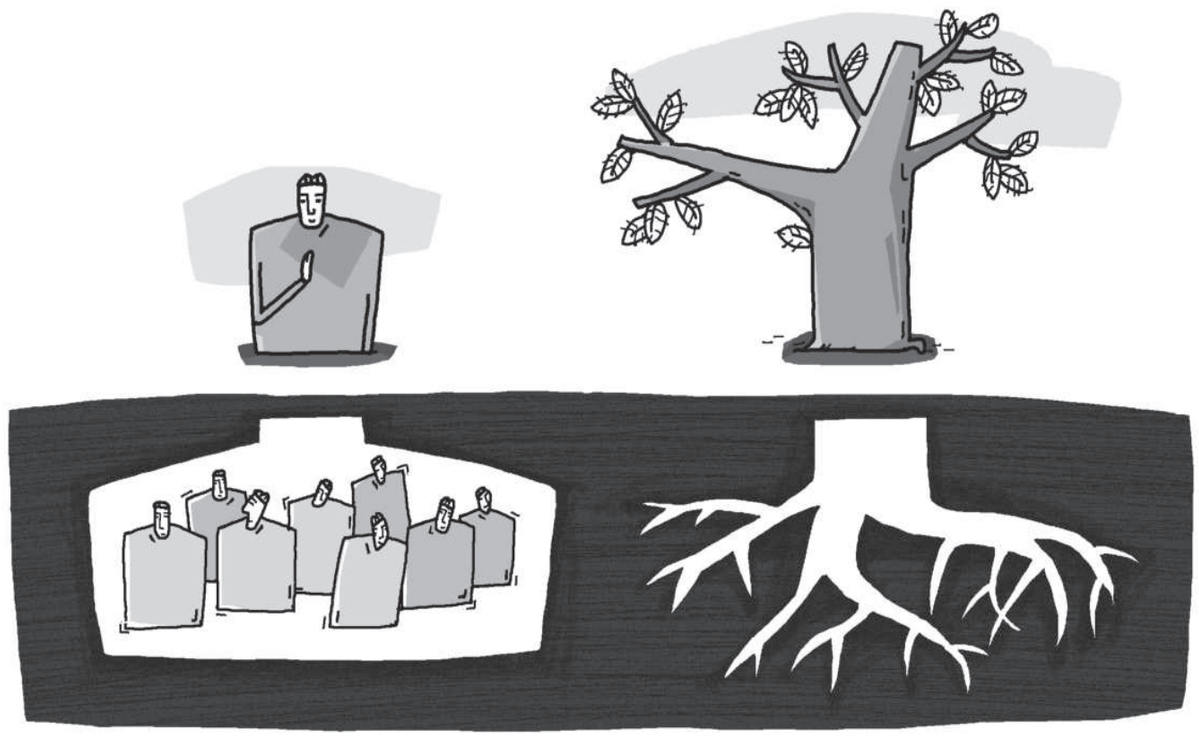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질문을 드리기 전에 큰스님께서 미리 아시고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 형제님들을 대신해서 큰스님께 질문드릴 수 있는 행운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대로 불교를 종교로 삼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를 숭상하면서 자라 왔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현재는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도 10년 동안 법당에 다녔습니다. 3년 전부터 본원에 인연이 돼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천도재를 이곳에서 올렸고, 또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서 백일기도 발원을 올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조상들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결국은

☞ 19면에서 계속

려 전기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모두 큰스님의 해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도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여러 신도님들이 계십니다. 천도재를 올렸는데도 촛불재니, 또는 조상을 위한 백종이니 이러한 여러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에 왜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 또는 참여해야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이 의문이 됩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큰스님 우리가 왜 밥을 먹고 또 밥을 먹습니까? 아침 먹었으면 됐지 점심 저녁까지 먹고, 그 이튿날은 또 왜 먹습니까? 보십시오. 아침 쇳송에 부모의 은혜를 갚고, 국왕의 은혜를 갚고, 만물의 은혜를 갚고 이 모든 생물의 은혜를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듯이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성장시켜 놓은 부모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낳아서 기르느라고, 이 도리를 잘 배우지도 못한 채 그냥 허덕지덕 허덕지덕 하다가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이 도리를 알고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천도를 시킨다는 것은 조상들이 다시 짐승으로 태어나지 말고, 현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죄 석방이 되게끔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태어나야 하고 독사같이 살았으면 독사로 태어나야 할 텐데, 그것을 무마시켜서 바로 다시금 인도환생하라고 천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뭐가 따르느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만나서 이 공부 하면서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게 해 드리기 위한, 그 은혜를 갚고 묵은 빚을 갚는 그런 것이 즉 재(齋)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애를 낳아 놓기만 하면 다 사회인이 됩니까? 길러서 가르치고, 가르쳐서 다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만 이 그게 어른입니다, 이제. 그럴 때까지는 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또 끝이 나요. 그러곤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했던 것이 또 부모가 돼서 끝이 나고,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해야 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름해서 효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 증조모는 천도를 시켰는데 왜 그러냐? 윗대 조상들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천도를 시켰다면 천도된 분들은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깨쳐서 부처님 한자리를 했다 할지라도, 천도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시기가 있고, 위에 올라가 앉아서 '아! 저놈은 참 착하구나.' 하고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뭐, 내 부모만 부모입니까? 정말 부처님 자리 한 자리를 했다 할 때는 그렇게 공을 들이고 촛불재를 하고, 백종을 지내고, 사월초파일에도 등 달고 다 이렇게 조상들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로 돌아가니까, 전부 일체제불과 더불어 일체 중생이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자식 내 자식 따질 수가 없고, 네 부모 내 부모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다면…, 지금 높은 판사로 됐다면, 내 자식들만 자식이라고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무죄로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기가 있고, 아래서 허덕거리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시기가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천도재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말고 인도환생하여 태어나게 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또 부모가 인도환생이 된 후에도 이런 법을 알아서 정말 한자리 하도록 원하는 그 자식들의 은혜를 갚는 마음이 아주 끝 간 데 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밥 한 번 먹고는 어떻게 밥을 또 안 먹습니까?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질문자1(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을 공부하는 데 한 가지 야심이 있다면 그것은 견성성불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저희들의 욕구도 모두 그와 같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큰스님을 따라서 배우는 저희들의 공부 목적이 결국 큰스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큰스님께서 인연을 살펴보시기에, 저희들 가운데 장차 큰스님의 경지에 이를 제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감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 웃음)

큰스님 네, 그 말씀 잘하셨어요. 우린 죽으나 사나 같은 도둑놈이듯이, 허허허, 다 한자리로 항상 도반이 될 겁니다.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빠르고 더딜 뿐이지 다 됩니다. 그 뜻을 아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이제 됐습니까? 하하하….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참회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원효 선사의 경전 해설 『대승육정참회론』에 이르기를 "모든 죄는 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죄업은 안에도 밖에도 없으며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심오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얼핏 느끼기에는 그러면 '죄업이란 없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죄업이 실재하지 않는다면 참회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큰스님 그것은 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게 붙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냥 여여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중에서 대답할 분 안 계십니까? "모든 죄업이 붙을 것도 없고,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이냐는 얘깁니다. 이 죄업이 통틀어서 하나도 붙을 자리가 없다 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얼른 한자리 하시죠?

신도1(남) (대중 가운데서) 찰나로 돌아가니까 없죠.

큰스님 예? 하하하. '찰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없다' 이런 소리를 '둘 아니게 공해서 돌아가니까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첨보돼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건 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붙을 자리가 없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병을 20년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길 듣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앉아서 "병이 그렇게 있는데…." 그러기에 내가 그냥 퍼뜩 그런 말을 해 버렸어요.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길래. 병 내놔 봐, 고쳐 줄게!" 이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입을 딱 벌리고 생각을 하더니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가는 도중에 그냥 나아 버렸어요. 그 사람도 그러한 병 때문에 10년, 20년 그냥 공부를 해 온 거죠. 좌선도 하고 뭐, 별짓 다 했답니다. 그래도 그렇게 배워 왔기 때문에 말뜻을 퍼뜩 알아들은 겁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자세히 가르쳐 드리느라고 또 말하는 겁니다. 병증세를 병원에서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이름이다. 삼재가 들었다고 하는 것도 이름이다. 가지 못한다 간다, 이사 가는 방향을 봐야 한다 하는 것도 이 모두가 관습이다. 그러니까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니까 그대로 자재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인간은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아니까 그걸 가려서 생각하고 거기에다 그냥 놓고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법이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판단을 해서 놨을 때 그대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없지요. 하하하. 붙을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찰나찰나 나투어서, 바뀌어서 돌아가는 까닭이다.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하며, 어떤 거 붙었을 때 내가 나한테 붙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드리지는 못합니다. 허허허. 삼세를 모르고는 이렇게 못 합니다.

질문자1(남)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마음선원에 나오기 전인데, 불교를 숭상하다 보니까 여러 스님들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님 한 분께서 불법의 참뜻을 일컬어 '판치생모(板齒生毛)'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짐작으로는 말을 여읜 경지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쯤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가끔씩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다시 헤아려 보곤 합니다. 판치생모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큰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큰스님 간단합니다. 널판 같은 이빨에 털이 난 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을 겁니다. 판때기, 즉 말하자면 '이 널판지같이 생긴 이빨에 털 난 까닭이 무엇인가?' 하고 옛날에 그저 낚싯밥으로 던진 얘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럼 빨리 알아들으시죠? 널 같은 이빨에 털 난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러면 지금, 이빨에 털 난 것을 말하는 건데, 제가 어디 있는 것이 귀신 방귀씨냐고 물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해서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서 보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달마 대사가 혜가 스님에게 "네 편안치 않은 마음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고쳐 줄 테니까." 이랬듯이, 뉴욕 사람이 왔을 때 "아, 병을 내놔 봐라, 내 고쳐 줄게." 했듯이.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그 말대답을 할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대답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보기 위한 방편이지요. 얼른 쉽게 말해서 박이 익었나 안 익었나 하고 바늘로 콕콕 찔러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일러 주고 대답을 바라는 사람이 어딨나 하겠지만요. 하하하. 어떻게 간단하게, 묘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도2(남)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대답하렵니다. (손뼉 치는 소리?)

큰스님 허허허. 이거 봐! 이거는 참고적으로 들어야 돼. 털이 난 거를 알았다 하고 봤다 할지라도 이거를 기르려면, 허! 몇 해 걸려. 그런데 이거를 기르려면 말이다, 그 판치생모에서 그 털 난 것을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되고, 그 털을 털한테다가 먹일 때 아주 조심조심해서 그대로, 나온 자리에다가 그대로, 지금 놓으라고 하듯, 더 배불리 먹여도 아니 되고, 덜 먹여도 아니 되고 잘 먹여서 둘 아니게 나투는 그 도리를 알기까지 잘 키워야 돼. 알았지? 하하하….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2월 7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우리가 지금 천도재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 말고 인도환생하여 태어나게 해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 또 인도환생 후에도 부모가 이런 법을 알아서 부처님과 한자리 하도록 원하는 자식들의 은혜를 갚는 마음이 아주 끝 간 데 없이 계속돼야 합니다.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⑯ 무주상보시가 어려워요

대가 바라지 않고 베푸는 마음

부처님 가르침의 으뜸은 '보시'다. 〈금강경〉에서도 가장 크게 배우는 것은 상에 머물지 않는 '무주상보시'인데, 주고 나서도 주었다는 생색을 내거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다. 아침마다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한탑 스님의 〈금강경법문〉 윤독시간에 정희님(가명)이 보시를 함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했다.

"129페이지에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나가 생기게 되고, 나가 생기면 너가 생기니 너와 나의 대립이 있는 상대 세계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좀 더 나은 내가 모자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이는 상에 머무는 보시이기에 그런 보시의 복덕도 유한일 수밖에 없습니다.'를 읽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상황이나 여건이 되면 베풀고 보시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바라는 바 없이 그냥 보시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하고는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가 힘들어요. 가령 명절이나 생신 같은 때에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아랫사람 입장에서 무언가를 해드렸는데, 받으신 분이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넌 이거밖에 안 하니?'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더 솔직하게는 보시했던 마음도 쏙 들어가고 다시 달라고 말하고 싶어져요. 제 딴에는 하느라 했는데 조금 더 바라거나 '이거밖에 안 하냐'는 식으로 말하면 '다시는 해드리나 봐라'하는 어깃장도 생기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이 많이 가는 주제라 서현님(가명)도 법담을 이어갔다. "저도 얼마전에 친구하고 이런 주제를 얘기했었는데요. 자식된 도리로 무언가를 해드렸을 때 (내 기대치와 맞지 않는)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의 표현에 대해 응어리가 맺히는데, 내 마음을 내려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는 쪽은 늘 부모님이었구나, 나이 들어가면서 어른들의 표현들이 세련되지 못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대로 고집대로 말하시는 게 강한 건데, 그런 말들에 먼저 마음이 상해서는 내쪽에서도 말이 곱게 안나가고 거기에 어른들이 또 섭섭해하시는 게 되풀이되는구나를 돌아본 적이 있어요. 일상에서 이렇게 감정이 상할 땐 얼른 '언제나 먼저 베풀고 주는 쪽은 부모님이었다'를 떠올려보자며 서로의 고충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자 미영님(가명)도 "무주상보시가 참 어려워서 극복을 못하는 부분인데요. 불교를 믿는 저로서는 몸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무조건적으로 베풀게 되는데, 제가 불자인 것을 알고 그런 마음을 이용하려는 상황들도 제 경우엔 아주 많아요. 주는 것이 상대에게 독이 되는 경우에는 '베풀지 않을 때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머물지 않는 보시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 지혜로워지는 수밖에 없겠죠? 지혜롭게 대처해야 상대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은 거니까요. 주고 나서 상대의 반응 때문에 서운함이 밀려오지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로 되었다고, 내가 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여기면서, 제 안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생각들을 끊어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 제 식으로 해석하고 따지면서 속상해하고 서운해하는 습관이 조금은 멈춰지는 걸 경험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생색
반응마저 내 만족임을 알라

종교를 빌미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영님(가명)은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아이도 있으니 쪼개고 쪼개서 드린 건데, '너는 종교가 불교니까 무조건 보시하고 베풀어야 하는 사람 아니니?'라는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상종하기가 싫을 정도에요. 어른이지만 존경심이 들지 않아요. 사실 누군가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주면 우선 먼저 감사하지 않나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상대방이 고마워하거나 서운해하는 것에 제가 휘둘린다는 건 (제 딴에는 없다고 생각했지만)크든 작든 어떤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증거겠죠?"

그렇다. 〈금강경〉의 법문에 비추어보면 인정받고 싶은 내가 있기에 일어나는 감정들이다.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할 때 굉장히 기쁘다. 기쁘게 준비하는 것까지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받은 사람이 행복해하고 고마워할 것까지 기대를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흡족하게 반응이 안 오니 '괜히 줬어, 아까워, 도로 뺏어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다. 나는 주는 것까지로만 끝내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복을 지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으로 감사해하자. 내가 챙겨야 될 살림은 '서운한 마음과 도로 뺏어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일 뿐, 그 사람의 반응까지 내가 관여할 건 아니다. 상대방도 서운해할 자유가 있다. '내 형편에 이렇게 해드리면 그냥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내가 생각하듯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는가'하는 마음을 시어른도 가질 수 있다고 받아들여보자.

아이나 어른이나 다 자기 기준의 생각이 있는데 내 기준에서 나만 옳다고 하고 있진 않은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만 돌아보자. 내 반응은 내 소관, 상대방의 반응은 그 사람의 소관일 뿐이다. 상대방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도 나의 욕심임을 알면 줄 때의 마음이 훨씬 편안해질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㉒ 손목터널증후군

올바른 자세로 손목터널증후군 예방을

손목에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는 일종의 터널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터널의 내부로 9개의 손가락 힘줄과 1개의 정중신경(median nerve)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손가락 힘줄 등의 구조물이 굵어지거나, 물혹과 같이 터널 내부에 공간을 차지하는 병변의 발생, 터널을 덮고 있는 터널의 뚜껑 역할을 하는 인대가 굵어지는 경우와 같이 터널이 좁아지거나 터널 내부의 압력이 올라갈 때 그 압력에 의해서 터널에서 가장 약한 구조물인 신경이 압박되어 신경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손목터널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CTS)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손목터널증후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손목부터 시작하는 신경 증상으로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추세인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 증상, 진단 및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

손목터널증후군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입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잦은 현대인들은 손목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손목터널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유전적 요인:** 가족 중에 손목터널증후군이 있는 경우 발병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특정 질환:**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질환은 손목터널증후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외상:** 손목 부상이나 골절로 인해 신경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임신 중에는 체내 수분량이 증가하여 손목의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증상

손목터널증후군의 증상은 초기에는 미약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된 증상은 손의 엄지, 검지, 중지, 약지의 저림과 통증이 이어지거나 손목이나 팔이 아프고, 특히 밤에 증상이 심화되며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건을 잡거나 손을 사용할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 손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늘며 질환 함께 증가
바른 자세, 스트레칭 등 예방 가능
질환 발생시 적절한 치료 관리 필요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방법

손목터널증후군의 진단은 가장 먼저 신체검사를 통해 손목과 손의 감각 및 힘을 평가합니다. 필요에 따라 '전기진단검사(EMG, NCV)'를 통해 신경 전달 속도를 체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손목터널 증후군을 진단합니다.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 x-ray나 초음파, MRI 등을 이용하여 손목 터널의 구조적 문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 치료 방법은

손목터널증후군의 치료는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접근됩니다. 일반적인 치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존적 치료:** 손목 보호대 착용이나 소염진통제 등과 같은 약물 사용을 포함합니다.
- **물리치료:** 손목 스트레칭 및 강화 운동을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스테로이드 주사:**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술:**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심각한 경우, 전기진단검사 상에서 중등도 이상의 신경 병변이 있는 경우 신경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병변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손목 터널 위에서 일종의 뚜껑 역할을 하는 인대를 제거하는 간단한 수술을 시행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 예방방법

손목터널증후군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예방을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 **올바른 작업 자세 유지:** 모니터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손목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하여 손목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 **정기적인 휴식과 스트레칭:** 1시간마다 5~10분 가량의 휴식을 취하고, 손목과 손의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 **적절한 도구 사용:** 인체공학적인 도구와 장비를 활용하여 손목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손목이나 손의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손목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영경
거인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전법 일기

부모·자녀 함께 한 '홍사바오' 가족을 불교에 스며들게 하다

동림소년소녀합창단을 맡은지 약 3년쯤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불교합창단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사찰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갖도록 하겠다'는 내 발원의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코로나19(COVID-19)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유행한 것이다.

코로나19는 내가 지휘하고 있던 사찰의 합창단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심지어 팬데믹 사태가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어졌던 탓에 동림소년소녀합창단에 있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버렸고, 자연스럽게 합창단에서 졸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당시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합창단의 분위기를 다시 바꿀 수 있도록 뮤직비디오 촬영, 합창 녹음 등 활기가 돌 수 있는 활동뿐이었다.

다행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중지되었던 행사들이 재개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내 귀를 쫑긋 세우게 한 행사가 있었다. 바로 2022년도 찬불가 열창대회였다. 나는 합창단의 분위기를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기 위해 이 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였다. 비록 인기상에 머물렀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찬불가를 찾아보고, 안무와 의상도 기존의 정적인 합창단 스타일이 아닌 걸그룹 컨셉으로 새롭게 준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값진 경험을 하였다.

하지만 이때 인기상에 머물렀던 것이 아쉬워 나는 아이들과 함께 이듬해에도 찬불가 열창대회에 도전하였다.

홍법사는 매주 일요일에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는데 사찰의 위치상 아이들을 픽업해야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들도 함께 절에 오게 되었다. 이때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합창단이 '세향합창단'이다.

나는 이번 찬불가 열창대회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바로 동림소년소녀합창단과 아이들의 자모·자부 합창단인 세향합창단과의 가족 무대였다. 팀의 이름은 홍법사의 보배라는 뜻인 홍사바오.

그렇게 '홍사바오'는 가을에 열리는 2023 찬불가 열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더웠던 여름을 시작으로 매주 2~3번씩 모여 연습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어쩌면 너무도 특별했던 구성이면서 나도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염천의 여름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구슬땀을 흘렸기 때문일까. 2023년 가을, 우리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받듯이 홍법사의 '홍사바오'는 찬불가 열창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쥐게 됐다.

내가 아이들, 부모님과 함께 찬불가 열창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나의 발원이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주말마다 사찰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즐겁게 율동하며 찬불가를 부르는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불교가 스며드는 모습 그 자체였다.



이지윤
홍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불자여, 지금 바로 기후정의를 실천하자

특별기고



천도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9월, 세계 곳곳에서 기후정의를 위해 행진한다. 세계 곳곳에서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화석연료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집회와 행진과 파업 등을 벌여 왔다.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하고 기후 불평등 해소를 촉구하며 모두가 함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자는 함성이다.

이 시대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신다면 응당 기후약자들이 사는 곳에 나투시지 않겠는가? 생명의 존엄과 만물의 평등함을 바탕으로 한 불교인이라면 앞장서서 소리 내고 실천해야 할 일순위가 기후정의와 환경보호 운동이라고 생각된다.

매년 매달 역대급 기후 기록을 뒤엎고, 새로운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작금 무엇이 가장 시급한 일일까?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위기로 다가왔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그럴듯한 물질과 자본의 세상도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얼마나 낭비되었으며,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를 부르는 온실가스는 오죽 많았겠는가? 매일 같이 대량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갈 곳 없어 우리의 숨통을 옥죄어 오고 있다. 논밭과 산, 강과 바다, 습지를 끝없이 개발하며 칼끝의 꿀을 빨고 있는 형세다. 편리한 인터넷 쇼핑, 택배회사, 해외관광과 여행, 자동차 대중화 등은 모두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와 연동해 기후위기를 촉진한다.

> 오는 9월 7일 세계 곳곳서 기후정의 위한 행진
> 현재 부처님 나투시면 기후약자와 함께 할 것
> 타종교 비해 관심 부족… 불교 참여 확대 기대

기후위기는 당신과 나의 위기이다. 그간 누렸던 편리함의 대가가 우리 자신의 존재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기후변화로 폭염, 폭우, 가뭄, 혹한 등이 심화하면서 세계 농작물 수확량에 영향을 끼쳐 '밥상 물가 폭탄'을 맞게 되고 서민들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식재료의 가격 폭등을 통해서 기후가 재난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듯하다.

특히 현대인의 필수 기호식품 격인 커피 원두 가격은 동남아 지역의 가뭄 여파로 연일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브라질의 가뭄과 한파로 인한 커피농사의 흉작이 한국에서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을 올려놓는다. 커피뿐만 아니라 밀가루, 오렌지, 올리브 등은 최근 수확량이 줄면서 연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서민경제활동에서 식재료 물가 때문에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 폭염 등을 체감하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커지고 있다. 8월 중순 낮 최고 기온이 아직 30도를 웃도는 대한민국에서 9월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후시민이 함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인 학생들과 불교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대거 참여를 고대한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천주교나 원불교의 요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마주할 때면 기죽고 부끄러웠던 기억이다. 올해는 종단의 환경위원회나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꺼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사는 집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어찌 편안하게 오늘만을 살려 할 것인가?

홍수, 폭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지구의 수많은 생명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기에 우리는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

'907 기후정의행진'에서는 '성장과 발전'으로 풍요를 거짓 약속하고 있는, 오직 자본의 이윤에 헌신하며 기후재난과 기후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는 세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물질적 성장에서 벗어나자고 말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자고 외칠 것이다. 불자여, 지금 바로 기후정의를 실천하자!

기자칼럼

원로 어산어장의 안타까운 걱정

8월 12일 서울 가양동 홍원사에서는 경제어산전승보존회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제43호 보유자 동주 원명 스님의 경제어산수륙재 시연회 개최를 대중에게 알리는 자리였다. 오는 9월 8일 서울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시연회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의 제자 12명이 스승의 팔순을 맞아 마련한 공연이어서 의미가 더욱 깊었다.

원로 어산어장을 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불교 의식과 의례에 대한 질문들이 오갔다. 동주 원명 스님에게 불교의식 전승의 어려움을 묻자, 스님은 "의식을 배울려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제대로 전승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가 함께 오다보니 의식을 배우려는 젊은 출가자들이 줄거나 전무해 제대로 의식(소리)이 전승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주 원명 스님은 이 같이 토로했다.

"여러 의식의 과정들을 일일이 몸과 머리로 기억해야 합니다. '짓소리' 경우 단전으로부터 소리가 올라와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렸을 때 배워야 익힐 수 있는데 배우겠다는 출가자가 나이가 40, 50대가 되어 오니 이미 목소리가 굳어져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죠. 배우겠다는 열의는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배우는 사람도 괴롭고,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동주 원명 스님은 올해 공연과 내년 홍원사에서 설행될 수륙재를 끝으로 불교의식 주관을 회향할 계획이다. 내년 이후에는 "모든 것은 후학에게 맡기겠다"고도 했다. 종교의식은 해당 종교만의 고유한 의미와 기능을 보여주는 행위다. 그렇기에 의식과 의례가 전혀 없는 종교는 있을 수 없다. 불교 역시 부처님에 대한 예경과 가르침을 전하는 데 특유의 의례가 활용돼 왔다.

이 같은 의례를 제대로 잘 전하는 것도 후학들의 몫이다. 이에 대한 종단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외면한 무릎 통증이 탈골·인대파열
수술비보다 걱정 앞선 '가족 생계'

네팔노동자 수딥 씨, 공장일하다 무릎 다쳐
병원비만 1500만원…치료 중단하고 퇴원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언어 사용, 신중하고 신중해야

현불논단



무상 법현 스님
열린선원장, 보국사 주지

지구촌 시대이다 보니 다른 나라에 갈 일이 많다. 필자 역시 불교계의 각 국가들과 불교 교류와 협력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 금강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또한 탈핵운동에도 참여하다보니 이웃국가 종교인들과 교류할 일도 많아졌고 팔레스타인, 몽골에 올리브나무 심어주기 운동과 종교간 대화운동도 하느라 비행기에 탑승할 일이 일상다반사다.

다른 나라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서 알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세관신고서(稅關申告書)'라는 게 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세관신고서를 쓰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부터 세관 신고서 제출 의무는 신고할 일이 있는 사람만 지니도록 하고 있다. 값이 비싸고 특별하거나 질병을 옮길 병원균을 지니고 있는 동식물만 없으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의무가 없는 이는 아무 일(申告) 없이 자유롭게 신고대 앞을 지나게 해서 아주 좋고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웃을 수도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상한 일을 겪어 이를 바로 잡고자 제안한다.

얼마 전 탑승한 비행기에서 이 같은 안내방송이 나왔다. "신고할 것이 없는 사람은 신고서 작성, 제출이 불요(不要)함을 알려드립니다." 발음도 '불요함' '부료함' 등으로,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세관신고서 작성 不要' 안내방송
불명확한 한자 사용에 이해 어려움
언어는 곧 정체성… 바른 사용을

이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서류 쓸 일(作成)도 낼 일(提出)도 없습니다. 자유롭고 편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될 일이다. 혹은 '신고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나가면 됩니다'고 해도 된다.

근래 교화 현장에서 많이 듣는 어려움 호소 가운데 하나가 '스님의 한국어가 꽤 어렵습니다'이다. 이는 듣고 보는 이들이 제대로 한국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글로벌 지구촌 시대에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언어는 자기 생각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바탕과 기본이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세관신고서 쓸 일(必要)이 없는 사람은 쓰지(作成)말고 지나 가십시오'라고 순우리말로 썼을 때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용자가 불명확하게 인식할 한자어를 남용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도, 바르지도 않다. 그렇기에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바르게 고쳐서 안내방송을 하기 바란다. 공항 입국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얼굴이기 때문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글을 쓰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다. 불교에서 말이나 언어로써 지은 죄는 '구업(口業)'이라 하며, 여러 악업 중 제일 무거운 업보이다. 〈천수경〉의 첫 머리에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이 나오는 이유도 구업의 엄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세상이 다 그렇지만 기본 생활을 바르게(正) 해야 한다. 바르게 해야 할 것이 많지만 생각의 표현인 말을 바르게 해야 바르게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 삶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외국인에게도, 불자들에게도 행복일 것이다.

위험사회와 불안 관리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체감 온도 35도의 찜통더위가 여름 내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폭염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 원인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탐욕적인 삶의 양식'이 바로 지구별을 훼손하고 지구촌의 온갖 중생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어찌 기후 위기 뿐이랴. 식물 세계의 보살인 '벌꿀'은 농약과 전자파에 집으로 가는 길을 잃고 객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구분심의 늪에 빠져 뜨거운 '불 칼'을 들고 서로를 증오하고 싸우면서 지구별을 화탕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새삼 〈위험사회〉라는 저서를 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ich Beck)이 생각난다. 그는 한국불교를 매우 좋아했다. 울리히 벡은 현대인의 삶을 '문명의 화산 위'에서 살아가는 것에 비유하면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다. 성찰적 근대화의 핵심은 바로 연기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지금 거창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 위험사회라고 하는 매우 불안한 사회에서 불안에 주눅이 들지 않고 불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개인적 삶의 지혜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

불안은 인간존재의 필수적인 감정일 것이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오온인 '색수상행식(色受想

위험사회 불안, 예측 불가능성 높아
불안은 실체 아니라 연기적임 나타내
이를 다스리는 지혜도 연기법에 있어

行識)'의 수(受)에 해당한다. 현대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종래에는 감정이 마음의 부속품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마음이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이론도 만만치 않다. 불안은 인간 감정의 제일 심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위험사회의 불안은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광범위하다.

최근의 감정은 우리 안에 내장된 것이 자극받아 표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자극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구성된 감정 이론'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감정은 평소에 잠자고 있다가 자극이 들어오면 깨어나는 반응성 장치가 아니라 뇌가 만들어 낸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감정의 수동자가 아니라 감정의 설계자가 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은 13살이 된 라일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사춘기를 통해 라일라의 감정이 통합되고 열린 자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정신과 교수는 '영화가 불안을 악당으로 보지 않았고, 결국 나쁜 감정이라는 건 없고 각 감정이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평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일상적 삶에서 생기는 불안에서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의 화두가 다가온다. '수즉시공, 공즉시수'가 아니든가. 불안은 바로 실체가 아니라 연기적임을 나타낸다. 불안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도 연기에 있다. 불안은 우리의 큰 수행처다.

社 說

홍대선원 '행턴'이 주목되는 이유

서울 저스트비 홍대선원은 소위 MZ세대 핫플레이스다. 단순히 위치가 젊음의 거리 홍대에 위치해서가 아니다. 그 시도들이 기존 불교 포교와는 다른 층위에 있어서다. 대표적인 것이 홍대선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저스트비 인턴쉽 행턴'이다.

'행턴'은 한국불교계 최초의 '대학생 사찰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출가했지만 아직 계를 받지 않은 행자와 인턴의 합성어다. 현재 홍대선원 행턴으로는 국내외 대학생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홍대선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불교 신행프로그램 기획 및 사찰 운영에도 동참하고 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행턴'에 대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단기출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홍대선원의 새로운 시도인 '행턴'은 사찰 운영과 불사 기획에 참여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사찰공동체 안에서 수행과 신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수행과 습의에 집중된 기존의 단기출가와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

"자중감이 있는 현 세대는 기회가 오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인기 많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시한)"는 전문가들의 진단처럼 사찰 신행 프로그램과 행정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수행 정진하는 '행턴'은 MZ세대 특징 중 하나인 '자중감'을 고양하는 포교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불교계는 '행턴'과 같은 포교 프로그램, 단기출가 모델을 어떻게 확장시킬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포교에 종단적 관심을

장애로 인해 신행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불자를 위한 〈종단본 불교성전〉의 점자책 〈점자 불교성전 제4권〉이 발간됐다. 이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서울 광림사 법당에서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광림사 주지 해성 스님과 사부대중 30여명이 참석했다.

법산 스님은 장애인불자들과 남다른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동국대 정년퇴직 후 15년이 넘는 지금까지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에 방문, 장애인불자들과 함께 금강경을 읽으며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불자들을 위한 〈점자 금강경〉을 보시하고 다양한 점자 불교서적 발간을 지원하면서 장애인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가 돼주고 있다.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은 불교의 평등 자비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3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애인 복지에 힘쓰며 연화원을 이끌고 있다.

장애인 포교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너무 많이 회자돼 굳이 더 첨언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그럼에도 잘 이뤄지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쉽게 긍정의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 한국불교 포교의 맹점인 원력있는 불자들만의 노력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제일 아나율은 시각장애인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한 범불교적 관심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2568년
종도 하계연수교육

불기2568(2024)년 종도(스님, 법사님)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 종단의 포교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2시 ~25일(수)
■장 소 : 교원도고연수원 (충남 아산시 선정면 신성길 27-6)
■신 청 : 각 지역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접수
■비 용 : 10만원
■준비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불기 2568년(2024) 8월 2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4하계
종도 연수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국 남경 서화사에서 승랑대조사 다례재 등을 봉행하는 2024 하계 종도 연수를 진행하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8년(2024) 8월 2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8월 2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